

‘한강기적’ 일군 기업들, 녹색기술로 ‘기후기적’ 이끈다



우리나라를 산업 강국 반열에 올려 놓은 굴뚝 산업. 고로에서 녹아내리는 역동적인 쇳물은 50여 년간 대한민국의 자동차·조선·건설·가전·기계 등 전방산업과 희로애락을 같이 했고, 1887년 3월 경복궁 건청궁에 최초의 전깃불을 밝힌 한국전력공사(구 한성전기)는 130여 년간 한강의 기적을 함께 해 오며 현재 2300만여 가구와 산업 전반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관련기사 4·5면

그러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일군 기적은 엄청난 양의 탄소발자국을 남겼고, 이들 기간산업에 ‘기후위기 주범’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이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국내 경제구조상, 화석연료를 대체하기에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60%가 산업 부문에서 나온다.

그럼에도 탄소중립은 기업, 나아가 인류의 생존을 위해 거스를 수 없는 거대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의 윤리와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됐고, 기업 경쟁력과 투자 지표로도 활용된다.

포브스에 따르면 올 3월까지 전 세계 2000대 공기업의 약 21%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넷 제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에서도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시대적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문승욱 산업통상자

③기업특명 ‘넷 제로’ 화석연료 ‘기후위기 주범’ 낙인 “탄소중립이 지속 가능 경쟁력” 경영 혁신으로 신기술 개발 박차

원부 장관은 10일 열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공기업 간담회’에서 “향후 30년, 전력공기업은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기본 역할에 더해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야 할 때”라며 △공급 △전달 △산업생태계 등 3대 분야의 혁신을 강조했다.

실제로 작년 말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추진 전략이 발표된 후 산업계에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포스코와 한전 등으로 대표되는 굴뚝 산업은 탄소발자국을 지우기 위해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표방하며 친환경·탄소중립을 최우선한 과감한 지배구조 개선과 비즈니스 모델 전환, 획기적인 신기술 개발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또 이미 손 안에 있는 기술의 철저한 비용 절감과 이를 사회에 보급시키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2050년까지는 앞으로 30년. 이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기업들의 탈(脫)탄소 움직임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



팔만대장경. 770년 만에 일반 공개
팔만대장경 탐방 참가자들이 20일 오전 경남 함천군 해인사 법보전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해인사는 19일부터 하루 두 차례 일반 국민에게 팔만대장경이 있는 법보전을 공개했다. 이는 고려 고종때 대장경판이 조성된 후 770여년 만에 첫 공개다. 연합뉴스

식당·카페 밤 12시까지, 모임 6명+α 확대

7월부터 수도권 유흥업소, 콜라텍·무도장 등의 영업이 허용되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22시에서 24시까지 연장된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14일까지 6명+알파(α), 이후 8명+α로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먼저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한다.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250명, 충청권은 55명, 호남권과 경북권은 50명, 경남권은 80명, 강원권은 15명, 제주권은 7명이 2단계 격상 기준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1주간(14~20일, 집계기준) 권역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수도권이 328.4명, 충청권은 39.0명, 호남

중대본, 내달부터 거리두기 완화
수도권은 2주후 8인까지 허용
교육부, 2학기부터 ‘전면 등교’

권은 11.1명, 경북권은 18.3명, 경남권은 27.9명, 강원권은 7.4명, 제주권은 6.7명이다.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7월 이후 수도권은 2단계, 나머지 권역은 1단계가 된다.

사적모임 금지는 2단계부터 적용한다. 허용 인원은 2단계에서 8명, 3단계는 4명, 4단계는 18시 이후 2명이다. 7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집계 인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8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단,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에 대해선 사적모임을 6인까지 우선 허용하는 이행 기간(1~14일)을 두기로 했다.

사적모임 금지는 1단계인 비수도권에서 해제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이행

기간 중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규제를 최소화한다.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 1m 거리두기를 실시하도록 하고, 2단계 이후에는 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현재 수도권에서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도 3단계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영업시간은 1단계에서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선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에 한해 24시로 제한한다.

교육부도 거리두기 개편에 맞춰 2학기부터 거리두기 1~2단계에서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교의 전면 등교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개학 전까지 유치원과 초·중·고교직원, 고3·수험생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무리하고, 학교 방역에 1600억 원을 투입해 6만 명의 방역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규제 많은 한국증시, 매력 없어” 해외기업 상장 10년간 겨우 2곳

전문가 “코스피 국제화 수준 삼류”
국내 유니콘 기업마저 해외로 이탈

“국내 투자자들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이익을 남기려면 세계 굴지의 우량 기업들도 한국 증시에 신규 상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만고만한 해외 기업들만 일부 코스닥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홍콩·싱가포르의 물론 중국 상하이증시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크게 뒤처집니다.”

10년 이상 외국계 증권사에서 IB업무를 담당하며 잔뼈가 굵은 한 IPO 전문가는 “시가총액 등 규모보다 한국 증시 국제화 수준은 아직 삼류 수준에 머무는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증권사 IPO 전문가도 “홍콩 등 다른 증시 상장을 추진하려다 실패한 외국 기업들이 돌고 돌아 찾아오는 곳이 한국 증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최근 10년 동안 코스피에 상장한 해외기업은 단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거래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21년까지 코스피에 상장한 해외기업은 2월 상장한 ‘프레스티지바이오 파마’와 상장폐지된 일본 SBI모기지 2곳이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2015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항체의약품 개발 전문 제약회사로 한국인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다. 시장 전문가는 기업이 상장 시장을 선택

하려면 매력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증권업권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사전적 규제가 많고 촘촘해 해외기업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미국이나 영국은 기업이 허위 공시, 불공정 공시 등을 했을 때 사후적으로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을 받아 막대한 손해를 입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외국계 기업 유치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며 “한국시장도 대안이 될 순 있겠지만, 기업이 여러 조건을 검토하고 유리한 시장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의 우량기업 상장유치활동은 2019년 11월이 마지막이었다.

그나마 코스닥에 외국계 기업 17곳이 상장해 있다.

비상장 시장에서 1조원 이상의 몸값을 인정받은 ‘유니콘’ 기업들은 잇달아 미국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마켓컬리, 두나무, 카카오펀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아놀드 등의 기업이 미국 상장을 저율질하고 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입성한 쿠팡이 86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인정받을 만큼 흥행에 성공한 여파로 풀이된다.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미국 상장 열풍이 부는 건 ‘닷컴 버블’ 이후 약 20년 만이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이제는 ‘윤석열의 시간’이다. 대권 도전을 시사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식 활동에 나서자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됐다.

윤 전 총장은 그동안 ‘죽마고우’와 측근을 통한 ‘전언 정치’로 일관하다 대변인을 선임했지만, 메시지 혼선으로 열흘 만에 대변인이 사퇴하며 출마선언을 하기도 전에 뼈격대는 상황이다. 여기에 야권에서 제기된 ‘X파일’ 의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등 겹잡아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에 기수를 뒤집는 ‘파격 인사’로 검찰총장이 됐다. 본래 보수 야권과는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대변인 사퇴·X파일 의혹까지
공수처 수사도 기다리고 있어

장관 임명이 여권과 대립하는 계기가 됐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의 강력한 반대에도 여권이 조국 카드를 밀어붙이자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에 전격 수사에 나섰다. 대대적인 가족수사는 ‘탈탈 먼지 털기’수사라는 여당의 반발을 샀고, 급기야 여당의 사퇴압력으로 이어졌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조기에 낙마했고, 윤 전총장과 여권의 전면전으로 비화했다. 추미에 전 법무장관과의 극단적인 대결 끝에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대선 출마를 시사하며 총장직을 던졌다.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윤 전 총장 자신이 이제 검증대에 서게 됐다. 당장 대변인 사퇴로 첫 시험대에 올랐다. 윤 전 총장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이상록 전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을 대변인으로 선임했지만, 메시지 혼선으로 이동훈 대변인이 열흘만에 그만둔 것이다. 이 대변인은 한 방송에서 국민의힘 입당이 당연하다고 생각해도 되냐는 물음에 “그러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가 불과 약 2시간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입당 문제는 경계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해 혼선을 빚었다. 혼선은 이 대변인의 사퇴로 이어졌다. ▶9면에 계속

박준상 기자 jooon@

유흥업소·콜라텍 영업 허용... 비수도권 모임금지 해제

지자체 재량권으로 조정 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규제 완화
‘클럽 원정’ 부작용 일부 해소
방역수칙 위반땀 불이익 강화

정부가 20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다중이용시설 운영규제 및 사적모임 금지를 완화한 데에는 기존 방역조치의 수용도·실효성 저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 등 방역역량 확충이 복합적으로 반영됐다. 경북·경남·전남·강원 등의 시범적용 결과가 긍정적인 것도 거리두기 개편에 영향을 미쳤다.

방역당국은 다음달 1일부터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금지를 전면 해제했다. 다만 이행 기간(1~14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새 거리두기 적용 속도를 정할 수 있다.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사적모임 금지를 일시에 해제하는 대신, 이행 기간 중 단계적으로 모임 인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사적모임이 규제가 덜한 비수도권으로 이동

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수도권은 사적모임 인원이 14일까지 6명+알파(α), 이후에는 8명+ α 로 제한된다.

풍선효과는 행사에서도 발생 가능하다. 1단계에서 500인 이상 행사 시 사전신고만 하면 되지만, 2단계와 3단계에선 각각 100인 이상, 50인 이상 행사가 금지된다. 4단계에선 인원과 관계없이 행사가 불가하다. 집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대규모 콘서트는 2~4단계에서 5000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그나마 다중이용시설 운영규제는 전국적으로 완화에 ‘클럽 원정’과 같은 부작용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위험도는 3그룹으로 재분류된다.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 기타 실내체육시설이다.

비수도권(1단계)에선 기존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다. 기본방역수칙은 최소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식당·카페 등) 목적시설 외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방역관리자 지정 등이다. 유흥시설에 대해선 종사자를 포함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칸막이 내 노래·춤 제한 등 보다 강도 높은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2단계 이후에는 운영시간이 1~2그룹에 대해 2단계에선 24시, 3단계에선 22시로 제한된다. 4단계에선 1~3그룹 모두 영업시간이 22시로 제한된다. 집합금지 4단계에서 1그룹에 한해 적용된다.

전반적인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불이익이 강화된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에게 생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같은 사유로 집단감염 발생 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에 구상권이 청구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선 2주간 집합금지 조치되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보상에서 제외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김부겸(앞줄 왼쪽) 국무총리와 유은혜(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전면등교 전 교직원·고3 집중 마무리

개편 1~2단계 모든 학생 등교
칸막이 등 급식 환경 개선 총력

9월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 교육당국은 유치원, 초·중·고 교직원 및 고3·수험생의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고 학교 방역 인력 지원에 16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대비에 나선다. 다만 전면 등교에 따른 과밀·과대 학급 방역 지원 방안은 다음 달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전면 등교는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과 더 나은 학습을 돌려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교육계와 유관 부처가 모두 합심해 2학기 전체 학생의 등교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된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모든 학년이 전면 등교한다. 2단계에서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밀집도 3분의 2 이상, 초등 3~6학년은 3분의 4 이상 등교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초등 3~6학년은 3분의 4 이하, 중학교 3분의 1~3분의 2 이하,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까지 등교할 수 있다. 4단계는 신설된 단

계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8월까지 유치원과 초·중·고 교직원과 고3, 대입 수험생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초·중 교직원 및 돌봄 인력,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7~8월에 완료하고 고3 학생 및 고교 교직원 접종을 7월 셋째주까지 마칠 계획이다. 대입 수험생들은 8월 초에 접종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면 등교 시 방역 취약 요소로 꼽히는 급식 시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칸막이 설치 확대를 비롯해 △식사 환경 개선 및 식단 조정 △수시 환기·기구 소독 강화 등을 시행한다. 띄어앉기·지정좌석제 운영 등을 통한 좌석조정, 사자배식, 교실 배식 전환·병행 등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1617억 원을 투입해 1학기 수준인 약 5만 명(4만9942명)의 방역 인력도 지원한다. 과밀·과대 학급은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 학사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모듈러교사 배치를 우선 검토·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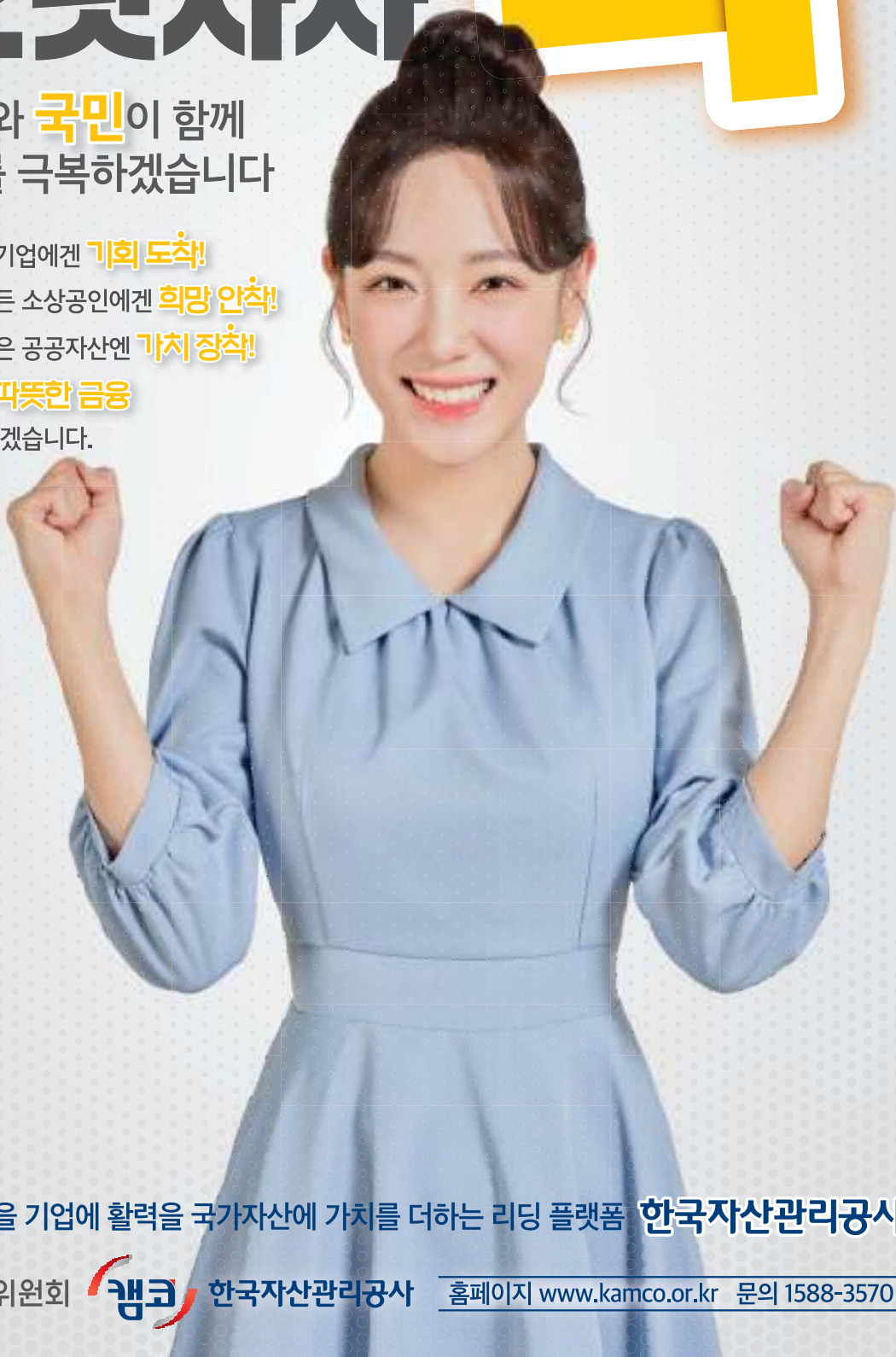
교육부는 무증상 감염자 선제 발견을 위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사·학부모 포함 학교 구성원의 코로나 우울, 확진·완치 학생의 후유증 불안 등의 치유를 위한 심리방역 지원도 강화한다.

손현경 기자 son89@

대한민국 으랏차차

캠코와 국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도전하는 기업에겐 **기회 도착!**
부채로 힘든 소상공인에겐 **희망 안착!**
활용도 낮은 공공자산엔 **가치 창출!**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힘 모아 돕겠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 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백신이 ‘만병통치’ 아니다

‘델타 변이’에 무너진 영국, 3차 유행 직면

대표적인 백신 접종 선행국인 영국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백신 접종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은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제3차 유행’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나흘째 1만 명 이상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급격한 확산세에 영국 정부는 이달 말 예정됐던 봉쇄 해제 일정을 한 달간 늦추는 가 하면, 축구장 등에 대형 백신 접종 센터를 마련하는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인 대다수가 적어도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은 영국을 이처럼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한 장본인은 인도에서 처음 보고된 변이 코로나바이러스인 ‘델타’이다. 현재

80개국 이상에 퍼져 있는 이 바이러스는 영국 내 신규 감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델타 변이의 감염력은 기존 바이러스 대비 최대 80%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공할 만한 전파력 때문에 델타 바이러스는 영국에서 지배종이 됐다.

세계에서 가장 백신 접종이 가속화한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이 변이 바이러스에 잠식되자 백신만으로는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날 기준으로 전체 성인의 81.0%가 1회 접종을 했으며, 전체의 59.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백신을 맞더라도 변이 바이러스 등의 위협을 피하려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변호선 기자 hsbun@

“쿠팡에 실망” 등 돌린 소비자… 경쟁자들은 전열 정비

파죽지세 쿠팡이 물류센터 화재 대처에 관해 논란에 휩싸이면서 탈퇴 운동 등 된 서리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쇼핑 시장점유율 13%의 쿠팡을 바짝 뒤따르고 있는 국내 3위 사업자 이베이코리아의 새주인이 신세계그룹으로 윤곽이 잡히면서 이커머스 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여기에 쿠팡역량을 한 번에 강화할 수 있는 주문·배송 플랫폼 요기요 본입찰을 앞두면서 그야말로 온라인쇼핑 업계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① 잘나가던 쿠팡의 위기

감법석, 화재 당일 의장직 사임
갑질 이어 ‘책임경영’ 논란까지
잇단 회원 탈퇴, 불매 움직임도

쿠팡이 물류센터 화재로 가파른 성장세에 브레이크가 걸릴 위기에 처했다. 쿠팡의 덕평 물류센터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일반 제품을 취급하는 곳으로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의 대형 시설로 연면적은 축구장 15개를 합친 크기인 12만7178.58㎡에 달한다. 센터 가동 중단이 장기화하며 일부 품목의 배송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감법석 이사회 의장의 국내 직책 사임 논란이 불거지며 불매 및 회원 탈퇴 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7일 김 의장이 쿠팡의 국내 법인 의장·등기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며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 대상에서 빠지기 위한 행보라는 시각이 높다.

국회가 올해 1월 통과시킨 이 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등을 초래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미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가 20일 폭격을 맞은 듯 뼈대를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인이나 기관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쿠팡은 이커머스 업체이지만 전국에 170여 개의 물류거점을 두고 1만5000명의 배달 전담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있어 화재 관련 사건·사고 우려가 높다. 이미 오프라인 유통기업을 이르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등은 모두 미등기 임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자유롭다.

문제는 소식을 알린 시점이 덕평 물류센터 화재 발생 5시간 뒤라는 점이다. 그는 작년 12월 31일 대표직을 그만둔 데 이어 11일부로 한국 이사회 의장, 등기이사직을 내려놨다. 물류센터 화재에 대한 진압이 한창 이뤄지는 시점에 일주일 전 마무리된 사항을 굳이 자료까지 냈어야 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화재 진압을 위해 투입됐다가 실종된 경기 광주소방서 소속 김동식 119구조대장이 19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되면서 쿠팡 불매·탈퇴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소셜미디어 트위터엔 ‘쿠팡 탈퇴’가 ‘대한민국 트렌드 순위’ 4위까지 올랐다. 최저가 판매로 납품업체 갑질까지 이슈가 되며 한 트위터 이용자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기업은 소비자가 나서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비난했다.

② 막 오른 시장개편 시즌 이베이 새 주인 ‘신세계’ 확실히 요기요 이번주 본입찰 흥행 기대 SSG닷컴·MBK… 롯데도 ‘군침’

위기에 처한 쿠팡의 빈 자리를 노리는 대표적인 업체는 정용진 부회장이 이끄는 신세계그룹이다. 신세계는 지난 7일 열린 본입찰에서 3조 원대 중반을 적어내며 이베이의 새 주인에 가까워졌다. 40년 업계 라이벌 롯데는 2조 원대를 제시했다가 철회하며, 이번이 없는 한 미국 이베이 본사는 신세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시장 1위 업체로 평가받는 곳은 네이버로 27조 원의 거래액과 점유율 17%를 기록했으며, 이어 쿠팡이 거래액 22조 원과 13%의 점유율로 2위 사업자다. 3위는 매각에 나선 이베일로 20조 원의 거래액과 1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거래액 3조9000억 원, 점유율 2%에 불과한 SSG닷컴을 보유한 신세계가 이베이 인수로 단숨에 쿠팡을 넘어설게 된 것이다.

여기에 컨소시엄을 구성한 네이버까지 더하면 신세계·네이버 연합의 거래액은 단순 합계로만 지난해 기준 50조 원가량으로

쿠팡의 2배를 넘는다. 양사는 지난 3월 2500억 원 규모의 지분 교환을 통해 쿠팡에 대응하기 위한 혈맹을 맺고, 빠른 배송과 플랫폼 노하우 등을 공유하기로 한 상태다.

이베이 인수전에 출혈을 우려한 네이버가 발을 뻗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신세계 그룹은 단독으로도 이베이를 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네이버는 인수가의 20% 수준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했지만, 신세계가 이베이 지분 80%에 대해 3조5000억 원가량을 제시한 점에 대해 네이버 내부적으로 ‘비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빠져거리면서 요기요 인수전에 대한 흥행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익일배송과 당일배송이 이커머스 업계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요기요는 1시간 내 즉시 배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온라인 쇼핑업계에서 군침을 흘릴 만한 매물이다.

현재 SSG닷컴 등 주요 유통 대기업과 MBK파트너스, 텍사스퍼시픽그룹(TPG), CVC캐피탈등 국내외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초 17일이던 본입찰이 1주일가량 늦춰지면서 이베이 입찰에서 소외된 롯데의 참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주현 기자 jooh@

네이버-CJ대한통운 ‘AI 물류’ 실험

네이버와 CJ대한통운이 군포와 용인에 네이버 판매자 중심 풀필먼트 센터를 오픈하고 AI 물류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네이버는 오는 8월 용인에 1만 9173㎡(5800평) 규모의 신선식품 전용 저온 풀필먼트 센터를 오픈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네이버는 이달 군포에 3만6363㎡(1만1000평) 규모의 상온상품 전용 풀필먼트 센터 가동을 시작한 바 있다.

새롭게 오픈되는 용인 풀필먼트 센터는 AI를 활용한 수요 예측, 물류 로봇, 친환경 패키징 등

경기 군포 이어 용인센터에 AI 활용 ‘스마트 물류’ 적용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스마트 물류 체계를 실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곳에는 네이버가 현재 군지암 센터에 적용하고 있는 ‘클로바 포캐스트’가 도입된다. 클로바 포캐스트는 네이버 쇼핑 주문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해, 물류센터의 인력 배치 및 운영 효율화를 지원한다. 현재 클로바 포캐스트는 주문량 변동폭이 큰 이벤트 기간에도 95%에 달하는 예측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네이버는 설명했다. 앞으로 각 판매자의 상품별 주문량을 예측하고, 이에 맞춘 물류 프로세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을 더욱 고도화한다.

조성준 기자 tiatio@

2021 건설의 날 기념행사

2021. 6.24(목) 10:30 | 건설회관 2층 대강당

200만 건설인의 힘을 모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Beyond Covid-19]
극복과 성장!

포스코, 굴뚝서 뿜어낸 ‘그린혁명’

‘배·철·수’ 업고 탄소 감축

굴뚝 산업의 대명사인 철강업계가 달리지고 있다. 특히 국내 철강산업을 이끄는 포스코가 ‘그린철강’으로의 이미지 변신을 주도하고 있다. 철강산업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7%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디배출 업종’으로 꼽힌다. 올해 2월 철강업계는 국내 산업계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공동 선언하며 탄소배출 감축에 팔을 걷어붙였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에 따르면 지난해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9390만 톤으로 전년보다 2.5%(약 240만 톤)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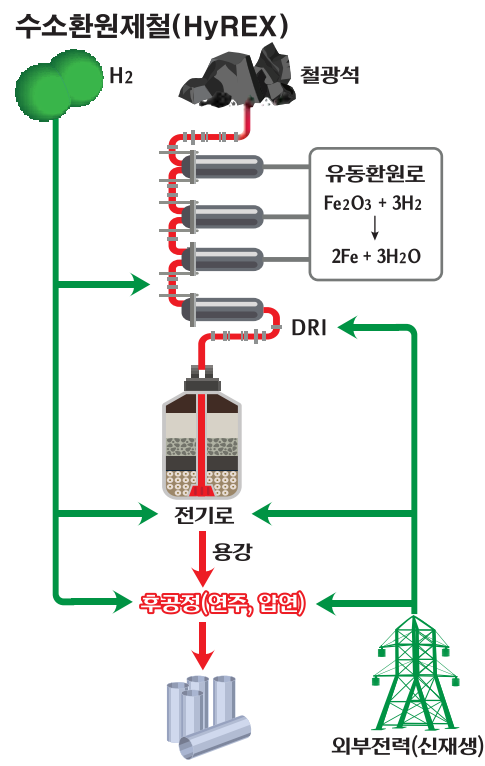
포스코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4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565만 톤(직간접 합산)으로 전년 대비 5.7%(461만 톤)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철강 생산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이 성과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포스코는 철강에서 배터리, 수소 등으로 영역을 넓히려는 ‘탄소 제로(0)’를 향해 보폭을 늘리고 있다. 이른바 ‘배·철·수’로 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올해 창립 53주년 메시지에서 “저탄소·친환경으로 대변되는 메가 트렌드 전환 국면에서 포스코그룹은 철강을 넘어 전기차 강자 및 부품, 이차전지소재, 수소 등 친환경 사업의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포스코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중·일 등 대형으로 생산체제에 기반한 아시아 철강사 중에선 처음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큰 의미가 크다.

최 회장은 이날 초 펴낸 ‘2020 기업시민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는 탄소포집저장 활용(CCCS) 기술,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 공법인 ‘HyREX’과 같은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2030년까지



한·중·일 철강사 첫 탄소중립 선언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461만톤 감축

수소환원제철공법 개발 역량 강화

세계 유일 이차전지 배터리·수소 사업 패러다임 전환

수소 관련 핵심 생산 역량을 갖추는 내용의 그린수소 사업모델을 발표했다. 수소를 생산·운송·저장·활용하는 데 필요한 강재 개발과 부생수소 생산 설비 증대, 수소 생산 핵심 기술 개발, 수소를 활용한 철강 생산 기술인 ‘수소환원제철공법’에 대한 연구개발에 이르기까지, 내부적으로 수소 관련 기술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철강재의 원료인 철광석은 산소와 결합된 산화물 형태로, 용광로에서 환원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환원제로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면 철광석에 있는 산소가 수소와 반응해 물이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쇳물 제

조가 가능하다. 바로 수소환원제철이다.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과 수소를 유동환원로에 넣어 환원철(DRI)을 생산하고, 이를 전기로에서 정제된 쇳물(용강)로 제품을 만든다. 용광로(고로)에서 석탄과 철광석을 한데 녹이는 공정이 없어서 제철소의 상징이던 용광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포스코는 리튬, 양·음극재 등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도 힘쓴다. 포스코 그룹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와 이들의 핵심 원료인 니켈, 흑연을 공급할 수 있는 이차전지 소재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전기차(EV) 배터리용 리튬, 양·음극재는 가솔린 차량 대비 연비 개선이 가능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양극재 40만 톤, 음극재 26만 톤의 생산 체제를 구축해 애너지 소재 분야 23조 원의 매출,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호주 니켈 광업 및 제련 전문회사 ‘레이븐스프’ 지분 30%를 2억4000만 달러(약 2700억 원)에 인수했다. 포스코는 레이븐스프가 생산한 니켈 가공품을 2024년부터 연간 3만2000톤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는 전기차 18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다. 아울러 아르헨티나 ‘요르메 무에르토’ 리튬 염호, 아프리카 타나니아 흑연광산을 보유한 호주 광산업체 블랙록마이닝 지분 등을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의 뿌리인 철강 사업에서도 그룹의 온실가스 감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수송 부문에서 연료량 운행 거리 또는 운행 거리당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의무가 부과되면서 경량화 소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고장력 자동차 강판과 고요율 전기강판 판매를 통해 지난해 536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 효과를 냈다. 이주해 기자 winjh@



한전 ‘탄소배출 스위치’ 내린다

기후변화 대응 앞장

경북에 한국 최초의 전구가 켜진 지 134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한성전기를 모태로 역사적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꾸준히 성장해 국내 대표 에너지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가가호호 전기를 밝히고, 산업 전반에 전기를 공급하며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문제가 글로벌 지상 과제로 떠오르면서 한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전력 산업의 새 시대를 맞아 한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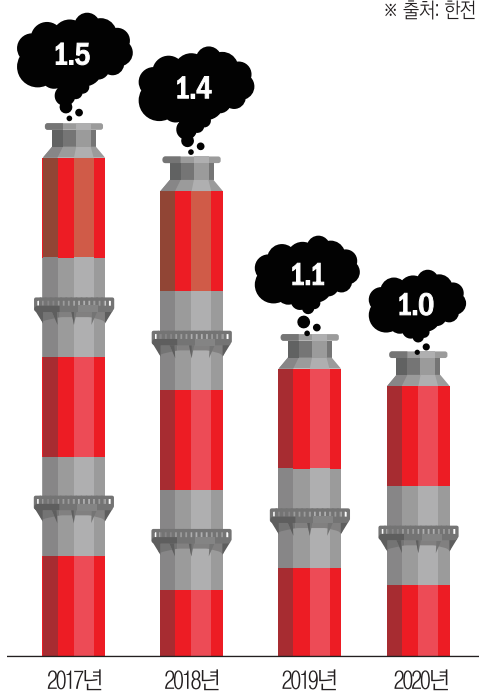
‘소프트 에너지 크리에이터’로서 새로운 도약을 꾀하고 있다. 전력의 생산, 수송, 소비의 전 과정에 친환경·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생산과 소비 효율을 제고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에너지 플랫폼을 통해 에너지의 미래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이다.

이달 취임한 정승일 한전 대표 이사는 사장을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한전은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며 “전력산업의 탈탄소화, 전력생산과 소비의 분산화, 전력 생태계 전반의 지능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은 지난해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설립, ESG 관리·감독체계 확립과 지속적인 ESG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질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104만 톤으로 2017년(148만 톤) 대비 29%나 줄이고, 정부가 목표한 2050년보다 10년 앞선 204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밝혔다.

한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이는 데 일조한 비결은 SF6(육불화황) 회수·정제 시스템이다. SF6 가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이 선정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다.

연도별 한전 온실가스 배출량



SF6가스 회수·정제 시스템 개발 성공 하반기 친환경 개폐기 실증·시험사용

5년 연속 탄소정보공개 우수기업 선정

2040년 전 사업장 재생에너지 전환

해외 석탄화력발전 친환경 운영 박차

대기 중에서의 수명은 3200년이며, 지구온난화 지수(GWP)는 이산화탄소의 2만3900배에 달해 환경에는 치명적이다.

SF6 가스는 개폐기, 변압기 등 송배전 전력 설비의 절연용 가스로, 한전 온실가스 배출량의 62%(65만 톤)를 차지한다. 한전은 2016년부터 이를 감축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착수해 3년 만인 2019년 6월 ‘육불화황 가스 정제장치’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신육천 발전소에 SF6 가스 회수·정제 시스템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구축, 지난해 약 18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전은 SF6 가스 사용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친환경 개폐기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SF6 Free 가스절연개폐장치를 확대 적용할 경우 SF6 가스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SF6 가스는 분해 및 무해화를 통해 완전적 감축이 필요한 만큼, 한전은 하루 100kg 규모를 분해할 수 있는 분해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한전은 ‘한국형 RE100’을 조기에 달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국형 RE100이란, 소비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전환하는 캠페인이다. 한국에서 인정되는 RE100 이행수단으로는 △녹색 프리미엄 △공급인증서(REC) △제3자 PPA △지분투자 △자개발전 등이 있다.

한전은 장기적으로 자가발전, 지분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확대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녹색 프리미엄 또는 REC 구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은 분사와 아트센터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 2035년까지 조기에 RE100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환경부가 올 3월 발표한 공공부문 탄소중립 실현 계획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2040년까지 전사적 차원의 RE100 달성 계획도 추진 중이다.

한전은 기후변화 대응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전은 2008년부터 글로벌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에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 정보를 공개해 왔다. CDP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비영리 민간 92개국 주요 상장사가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감축 노력 등을 평가해 금융기관에 투명하게 제공한다. 한전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에너지·유틸리티 부문 탄소경영 섹터’에서 A-등급으로 선정됐다.

한전은 해외사업 추진 시 저탄소·친환경 중심의 사업에 주력한다.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 중 인도네시아 자바 9&10, 베트남 봉당 2 사업은 지난해 정부 및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 국내 기업 동반 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속 추진하되, 나머지 2건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하거나 중단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중이다. 2050년 이후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은 사실상 모두 종료될 전망이다. 김해지 기자 heyyj@

국내외 기업과 친환경 동맹 ‘脫탄소’ 생태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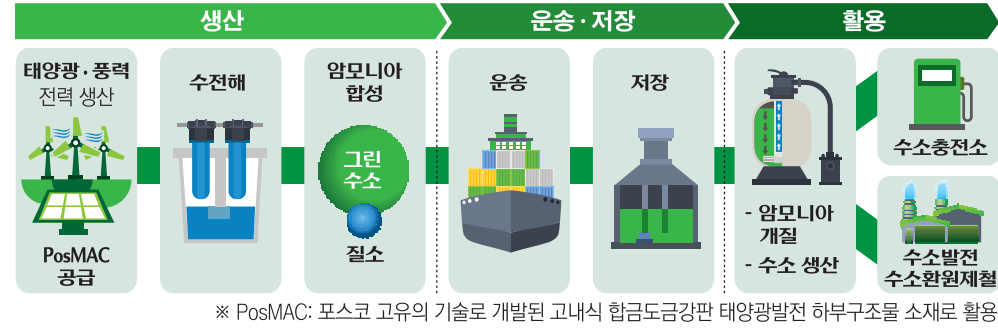
포스코, 탄소중립 광폭행보

현대차·SK·효성과 수소협의를 추진
호주 FMG와 그린수소 생산 ‘맞춤’
2050년까지 수소 매출 30兆 달성

포스코는 그룹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기업과 미래를 위한 전환형 사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포스코는 풍력·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력으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암모니아로 합성해 운송 및 저장한 후, 다시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해 산업·발전용 원료와 에너지원 등으로 활용하는 그린수소 사업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암모니아 수소 추출 기술개발 협력과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 참여 등으로 그린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 가치사슬 기반을 마련하고, 수소 저장 및 운송용 강재와 솔루션을 개발해 관련 인프라 구축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포스코그룹은 현대차, SK, 효성그룹과 함께 수소기업협의회 설립을 추진 중이다. 포스코와 현대차, SK 3개 그룹이 공동의장을 맡고 효성그룹 등 국내 기업의 참여를 독려해 9월 중 협의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포스코 그린수소 사업모델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기업도 수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수소에너지, 수소연료전지, 수소모빌리티 등 수소 관련 사업 및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주요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수소경제는 포스코 단독으로만 이뤄낼 수 없는 과업”이라며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고 각 산업계도 힘을 합쳐 탄소중립과 국가 발전에 함께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올해 초에는 현대자동차와 수소 사업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포스코그룹이 암모니아를 활용한 그린수소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현대차그룹은 포스코그룹의 그린수소를 사용하여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포스코의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운영 중인

다. 3월에는 호주 최대 전력·가스 기업인 오리진에너지와 호주 그린수소 생산사업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대용량으로 추출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수소경제를 견인하는 그린수소 선도기업’이라는 비전을 공표하며 2050년까지 수소생산 500만 톤, 수소매출 3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주해 기자 winjh@

차량 약 1500대를 단계적으로 현대차의 무공해 수소전기차로 전환한다. 아울러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해외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 등에도 함께하기로 했다.

전환형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그린 암모니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HMM과 롯데글로벌 화학, 롯데글로벌로지스, 한국전력, 한국조선해양 등과 지난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암모니아를 생산·운송하기 위해서다. 현재 수소를 운송하는 방법으로는 거론되는 신기술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암모니아 합성법이 꼽힌다. 수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해 운송하면 기존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고 운송 과정에서 손실률이 적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호주에서 생산한 그린수소를 암모니아로 전환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소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호주 원료공급사인 FMG와 그린수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

화학업계 ‘친환경 바람’

국내 화학업계에 친환경 바람이 거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전 세계에 퍼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기조의 일환이다. 업계는 탄소배출 주범으로 불리는 ‘플라스틱’을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기 위한 이른바 ‘그린 케미컬’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국내 최초로 재활용 플라스틱 필름을 개발해 친환경 소재의 신규 시장 개척에 나섰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LG생활건강과 롯데일렉트로닉스에 재활용 플라스틱(Post Consumer Recycled, PCR) 원료를 사용한 폴리에스터 필름(이하 PCR PET 필름)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달부터 두 회사가 출시하는 일부 생활용품과 식품 용기의 포장에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공급하는 필름이 적용된다. 압출 성형용 시트나 재생 원사 생산에 적용하는 데 쓰였던 PCR 페트 원료가 품질 관리나 형태 가공이 까다로운 필름 생산에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최대 바이오페트 생산업체인 롯데케미칼은, 식품포장용, 산업용 등 PCR PET 필름 적용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며 친환경 포장재 시장에서 새로운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오롱인더, PCR PET 필름 첫 개발
롯데케미칼·SPC, 바이오페트 협력
SK이노, 유럽 탄소포집 연구 참여

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럽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의 50% 이상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등 각국이 환경 규제에 나선 데 대해 효과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전체 PET 필름 시장 수요는 연간 약 600만 톤인데, 이 가운데 PCR PET 필름의 점유율은 1%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세계적인 플라스틱 사용 감축 움직임 속에 PCR PET 필름이 친환경 원료로 주목받으면서 제품 포장용 등 시장 장벽이 낮은 일부 분야를 중심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정호구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는 “재활용 플라스틱 신제품 개발로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재활용 PET 사업은 코오롱인더스트리 ESG 경영의 새로운 축으로 앞으로 적용 분야를 확대해 가며 지속가능한 내일을 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대 바이오페트 생산업체인 롯데케미칼은, 식품포장용, 산업용 등 PCR PET 필름 적용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며 친환경 포장재 시장에서 새로운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PCR PET’ 필름.

구축 협약식’을 맺으면서다. SPC그룹 식품제품 생산인 파리파게트, 베스킨라빈스, SPC삼립 등에 납품될 제품의 포장재에 롯데케미칼의 친환경 소재가 적용된다.

바이오페트 포장 용기는 사탕수수를 원료로 사용한다. 제조·운송·소각 과정에서 기존 석유계 페트 대비 이산화탄소를 28% 저감할 수 있으며, 100% 재활용할 수 있다. 롯데케미칼이 생산하는 바이오페트는 원료 생산부터 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 감소 효과를 인정받아 올 3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했다. 롯데케미칼과 SPC팩은 협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음료 컵과 샐러드 용기에 바이오페트를 적용해 친환경 패키지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는 유럽연합(EU)의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연구 협력에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앞서 노르웨이 국책연구기관으로 진행 중인 700만 유로(한화 약 93억 원) 규모의 ‘EU REALISE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공동개발 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가 정규 산업에서 CCS 검증, 경제성 평가 등 풀 만한 이산화탄소 액상 흡수제 기술 개발 협력을 목표로 하는 만큼,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는 2023년 4월 말까지 EU 14개 산학연, 중국 2개 기관과 함께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한다.

SK이노베이션이 이끄는 환경과학기술연합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또한 따르고 있다”면서 “SK이노베이션은 EU REALISE의 CCS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ESG경영 목적으로 추진 중인 그린밸런스 2030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지 기자 heyyj@

자회사 분리해 의결권 확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지배력 강화 꿈수

#해지펀드 소버린과 SK그룹의 싸움이 시작된 2003년 3월. SK 최태원 회장은 당시 그룹의 순환출자 구조의 정점에 있는 SK의 지분이 0.11%에 불과했다. SK C&C(8.6%) 등 계열사 보유 지분을 합쳐도 23.5%에 그쳤다. 그럼에도 이를 통해 SK텔레콤(20.9%), SK해운(47.8%) 등 주요 계열사를 지배했다. 소버린은 그 틈을 타 1800억여원으로 14.8%를 보유한 SK 최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경영권 싸움을 벌였다.

#2015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싸움이 한창인 시기에 삼성물산이건희 삼성전자 회장(1.37%)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13.65%에 불과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삼성전자(4.1%)나 삼성에스디에스(17.1%) 등 계열사 주식을 많이 보유해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런 빈틈을 눈여겨본 엘리엇은 7.1%를 보유하면서 단숨에 3대 주주에 등극할 수 있었다.

과거 SK와 삼성은 '자사주의 마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했다. SK는 보유하던 자사주 10.4% 가운데 6.2%를 하나·신한은행 등에 매각했다. 삼성물산도 역시 자사주 5.8% 전량을 KCC에 매각했다. 의결권이

인적분할한 신주엔 의결권 생겨 경영권 승계 노린 가족기업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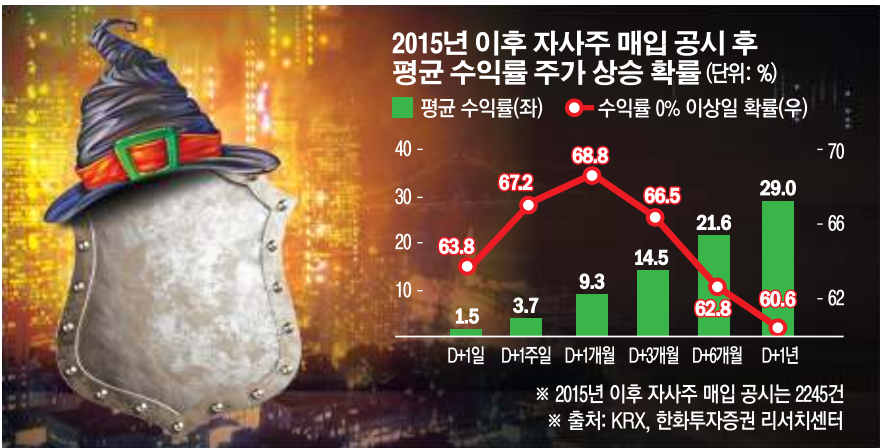
SKT '자사주 소각' 성공법 택해 부정적 관행 탈피 인식 변화 기대

없는 자사주를 우호세력에 팔아 주총 표대결에서 힘을 보태도록 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금지 않은 시선 때문인지 최근 들어 자사주 마법을 시행하는 대기업은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짐수를 부리는 기업들이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M&A)나 지주회사체제 전환(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상장폐지 등에 자사주가 오히려 일가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한 SKT, 짐수 대신 성공법= 고배당주로 잡히는 SK텔레콤은 지난 5월 2조6000억 원대의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발표했다. 전체 발행주식의 10.8% 수준으로, 국내 4대 그룹 자사주 소각 사례 중 비율로는 최대 규모였다. 금액으로는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SK텔레콤인 경우, 11.7%에 달하는 자사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에 나설 경우 존속법인은 자사주 지분율만큼 신설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질 수 있었다. 이에 시장에서선 대주주인 SK가 SK텔



레콤 자사주를 활용해 신설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자사주의 마법'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SK텔레콤이 대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히면서 '자사주 마법'이라는 짐수가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배주주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사주를 보유해왔던 다른 기업들이 SK그룹의 결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 369조에 의하면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그러나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인적분할 방식으로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분리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인적분할은 모회사 주식이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동등한 비율로 분할 배분된다. 이때 기존 법인, 예를 들어 지주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자사주

에는 여전히 의결권이 없지만, 분할된 회사인 자회사에 배정되는 분할 신주엔 의결권이 생긴다.

의결권을 가진 자회사 지분인 분할 신주는 통상 지배주주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이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지분을 상승이 이뤄지게 된다. 적은 지분율로 경영권 승계를 노리는 국내의 다수 가족 기업들은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해 왔으며 흔히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태원 SK그룹회장의 결정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까. 기업의 부정적 행태를 바라보는 여론이 갈수록 싸늘해진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예전처럼 쉽게 경영권 승계에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

해 온 최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다. 그의 행보가 재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데만 그치지 않으리라고 전망한다. 자사주 소각 발표는 그 인식 변화에 대한 한 반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주친화', 속내는 '지배권' 강화? 그러나 적잖은 기업들은 여전히 '자사주'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있다. 한국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사주 비율이 30%이 상인 회사는 14사였다. 눈에 띄는 점은 주주 가치를 내세운 9개 기업중 8곳이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활동(주주제안, 반대부결 등)에 맞닥뜨린 후 자사주 비율이 증가했다. 자사주가 강력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된 셈이다.

상장폐지에 자사주가 쓰인 일도 있다. A사는 상장폐지 목적으로 기업가치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추진해 소액주주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소액주주가 자사주 소각 후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것을 제안했으나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이 기업은 현재 계열사에 흡수합병 됐다.

정유진 한국지배구조연구원은 "자사주 취득은 주주환원의 성격을 띠나,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사주 소각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주주환원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유헤림 기자 wiseforest@

자사주 사들이는 대기업 경영권 탄탄해지고 하락장서 주가 방어 '일석이조'

금호석유화학 경영권을 놓고 삼촌과 조카의 싸움이 벌어진 지난 3월.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는 "금호석유화학은 우월한 수익 창출력을 보유했음에도 낮은 배당 성향과 과다한 자사주 보유 등 비친화적 주주정책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됐다"면서 "자사주 소각, 부실 자산 매각으로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고,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이사진을 구성해 저평가된 회사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왜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고 했을까.

다 이유가 있었다. 박찬구 회장측이 '자사주의 마법'을 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사주의 가치를 잘 말해주는 사건이다. 경기회복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비싼 돈을 들여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다. 주식이 쌀 때 사들여 경영권을 탄탄히 하는 동시에 계속되는 하락장 속에서 주가 하락을 막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것이다. 주가 상승 재료로 꼽히는 '소각'은 드물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공시한 기업은 각각 47곳, 11곳이다. 이는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한 주가 급락에 자사주 매입·소각 기업수가 각각 111곳, 17곳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로 늘어났던 지난해를 제외하면 지난 2010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다.

롯데하이마트는 5월 자사주 47만2000주를 장내 매수 방식으로 취득기로 했다. 매수 규모는 발행 주식 수의 2%다. 롯데하이

마트의 자사주 매입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황영근 롯데하이마트 대표는 "이번 자사주 매입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회사를 성장시켜 주주가치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NHN은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15만 주를 장내 취득했다.

현대모비스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 자사주 2441억 원어치를 취득기로 했다. 현대모비스는 2019년 2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1년까지 3년간 약 1조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계열사다.

자사주 소각은 주가 상승의 재료로 알려졌다.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여주는 효과까지 있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이란 열차에 사람이 많이 붙으니 승차권 값을 환급해주고 일부 승객을 내리게 한 셈인데, 남은 승객이 얼마나 쾌적할지는 그 열차가 앞으로 어떻게 달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유헤림 기자 wiseforest@

시니어 품격을 위한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6월호 발매

COVER STORY

아름다운 인생 졸업식

PART 1 장례 문화로 본 웰빙

PART 2 '생전 정리'로 후회의 대물림을 막다

PART 3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중간점검

PART 4 찾아줘 내 상조

PART 5 실버타운에서 여생을 보내도 될까?

PART 6 "슬퍼도, 슬프지 않아도 괜찮다"

전통 정원의 멋

다산초당

신라보가 만난 사람

생활 속 법률 상식

안전한 상속 솔루션, 신탁

구해줘 부동산

은퇴 후 리츠 해볼까?

느린 여행

강화도 고려산 아래 묵묵한 내공의 우공책방

가보고 싶은 귀농·귀촌 우수 지자체 ②

전북 고창군

감성 솔솔! 미술관 여기

산기(山氣)와 햇살과 바람, 그리고 볼 만한 그림들

슬기로운 보험생활

7월 출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4세대 실손보험'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 의견 접수 및 재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멋있게
with NH농협은행



설레게
with NH농협생명



놀랍게
with NH농협손해보험



새롭게
with NH투자증권

금융에 색을 입히다

당 신 이
색 다르면
금 융 도
색 다르게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이 광고는 NH농협금융 계열사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출연했습니다.



든든하게
with NH-Amundi자산운용



싱그럽게
with NH저축은행



즐겁게
with NH농협캐피탈



산뜻하게
with NH농협리츠운용



다정하게
with NH벤처투자



올바르게
with NH농협카드

66

〈소득 상위 10~20%〉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제외 가능성

정부 ‘하위 70% 재난지원금’ 제안…민주당 ‘80~90%’ 검토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국민 지급…‘2차 추경안’ 이달 말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90%에만 주고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 국민에게 주는 패키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원이 아닌 소득 하위 70%에만 지원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 하위 70% 계층은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모두

를,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만 받는 중층 지원 구조다.

민주당에선 여전히 전 국민 지원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80~90%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것이 내부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전 국민 지원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점쳤다. 이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도 일찌감치 선별 지원을 예고한 재정 당국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4일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

회’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선별 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소득 하위 70%는 기준중위소득의 150%와 같은 말이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기준중위소득 150%는 1인 274만2000원, 2인 463만2000원, 3인 597만6000원, 4인 731만4000원이다. 소득 하위 80%는 4인 기준 780만2000원, 90%는 829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애초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고 발표했을 때 지급 규모는 1478만 가구에 7조6000억 원이었다.

또 당정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신용카드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최대 30만

원으로 설정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소비 장려책이다.

당정은 3분기 평균 사용액 증가분을 따져 캐시백 규모를 정하게 되면 지급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점을 고려해서 한 달 단위로 산정하고 다음 달에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2분기에 신용카드로 평균 50만 원을 쓴 사람이 7월에 150만 원을 썼다면 8월에 10만 원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고, 8월 증가분에 대한 포인트는 9월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1조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호황을 누린 일부 품목과 사용처에 대해서는 환급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급 산정 대상 제외 품목으로는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가 거론된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골프장, 노래방, 성인용품점, 귀금속 판매점, 면세점,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도 환급 대상에서 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사용할 수 없는 곳으로 지정된 곳이다.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이번 주중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해 발표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4년새 기업 가치〉

폐자원에너지기업 몸값 8배 ‘쑥’ “ESG시대, 새로운 먹거리 될 것”

기업들 ESG 친환경 체질개선
24일 ‘기후-에너지회의’서 소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들의 경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신성장동력으로 폐자원 에너지 시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3월 취임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취임사에서 “ESG는 규제가 아닌 새로운 기회”라며 “ESG는 누군가가 하겠다거나 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세계적 흐름이었다”고 강조했다. ESG를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한 최 회장은 “ESG를 추진할 때 어떠한 디테일을 잡느냐에 따라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고 뒤쳐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말처럼 ESG는 실제로 거대한 규모의 경제와 연결되고 있다. 글로벌 사모펀드(PEF) 어필마케피탈은 SK건설에 종합 환경 플랫폼 EMC홀딩스를 1조5000억 원에 매각했다. 어필마케피탈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550억 원의 자본으로 EMC홀딩스를 인수해 기존 수처리 기능에 폐기물 소각·매립 등 기능을 갖췄다. 어필마케피탈 투자 당시 EMC홀딩스 기업가치가 1250억 원이었을

을 고려하면, 4년 만에 몸값을 8배 넘게 높인 셈이다.

특히 폐자원 에너지 분야는 앞으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ESG 가운데 친환경에 초점이 맞춰진 거대 경제 활동이 잇따를 것이라고 관측한다.

최근 하나금융투자가 25조 달러를 운영하는 전 세계 27개국 425명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투자 고려 시 ‘환경’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PEF 관계자는 “연기금을 비롯한 주요 출자자들이 최근 투자 판단 기준으로 ESG 요소를 채택하면서 이에 대한 요구사항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와 기후변화센터가 공동주최하는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의 2021에서는 폐자원 에너지 시장을 ESG와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이 소개될 예정이다. 폐기물 해결 방안을 비롯해 지속 가능한 ESG 경영에 대해 여러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다. 24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전 환경부 장관인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비롯해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총회·이사회 의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붐비는 명동거리…새 거리두기 내수 활력 불어넣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하향세를 보이는 가운데 20일 서울 명동 거리가 붐비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속도가 붙으면 서 방역당국이 이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는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오후 12시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 침체된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수도권 수소충전소 연내 10기 추가 구축

E1·하이넷·SK E&S 우선협상자로
올해 내 60기 이상 충전소 운영 전망

정부가 수도권 수소 충전 여건을 개선하고자 새롭게 10곳의 충전소 구축에 나선다. 환경부는 올해 수소충전소를 전국에 180기 이상 구축해 수소차 보급의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0일 수도권에 10기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

상자는 E1과 하이넷, SK E&S 등 3곳이다. 대상지는 서울 오곡동, 경기 고양 원당동, 과천 과천동(이상 E1), 의왕 왕곡동, 구리 토평동, 남양주 수석동, 하남 덕풍동, 인천 서운동(이상 하이넷), 인천 오류동과 송도동(SK E&S)이다.

추가 확보 예산은 150억 원으로 우선협상대상자는 연내 구축이 가능한 곳을 위주로 심사해 선정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심사 결과 앞서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E1·

SK가스) 부지 4기, 그간 수소충전소가 부족했던 경기 동북부 2기, 서울 근접 2기 등 서울 시정으로부터 약 25km 이내 인접 지역의 총 8기 후보지가 선정됐다. 나머지 2기는 환경부 환경산업연구단지와 대규모 액화수소플랜트가 구축될 인천지역(오류동·송도동)에 구축된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22기의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며 28기 이상이 구축 중이다. 이번에 10기가 추가되면 올해 안으로 약 60기 이상의 충전소가 마련된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일감몰아주기’ 적발 기업 시정내용도 알려야

공정위, 사후보고 의무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일감 몰아주기’로 적발된 기업이 시정한 거래 내용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가 최근 발주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행태 분석’ 용역에 따르면 내부거래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일감 몰아주기로 적발된 기업은 거래 상대방 별 거래 규모를 일정 기간 공정위에 보고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그동안 동일·유사한 부당지원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 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면 앞으

로는 그 명령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받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계열사들이 통행세를 내 총수 일가를 지원한 기업집단은 공정위 제재 이후 거래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고하게 하는 안도 냈다.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넓히고 일감을 개방하게끔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위는 최근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으면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많이 하는 기업들의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집중투표제’ 도입 기업 9곳 불과

민간 SKT 한 곳뿐…전경련 “지배구조보고서 지표 개선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기업 175개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집중투표제 등 핵심지표에 문제를 제기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2020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가 시행된 2018년 이후 비금융기업 175개사(자율공시기업 12개사 제외)의 3년간 현황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5개 지표에 대한 평균 채택률은 2018년 52.9%, 2019년 58.6%, 2020년 64.6% 등 꾸준히 상승해왔다. 특히 ‘정관에 전자투표 도입’ 지표가 2018년 25.5%에서 2020년 72.0%로 크게 높아졌다.

3년 연속 채택률 최하위인 지표는 ‘집중투표제 채택’이었다. 3년 모두 채택률이 5%

안팎으로 평균 채택률 64.6%에 한참 밑돌고 있다. 도입 기업은 3개년 모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대우조선해양, POSCO, KT, KT&G, SK텔레콤 등 9곳으로 상당수가 공기업이다. 순수 민간기업으로는 SK텔레콤이 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로 △경영 안정성 저하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 방어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영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집중투표제 채택은 어렵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與, 경선 연기 없이 예정대로 간다

‘9월까지 대선후보 확정’ 놓고 내홍
이낙연·정세균계 의원 반발 불가피
반이재명 연대 더욱 가속화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사진〉 대표가 사실상 ‘일정대로’ 대선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송 대표가 경선 일정 반발이 거센 만큼 당 내홍을 봉합해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선 연기와 관련해 의원총회 개최 여부를 논의했다. 송 대표는 경선을 연기하지 않고 ‘현행 일정’ 방향으로 가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이번 주 초에는 경선 일정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사실상 송영길호 지도부가 66명의 의원의 요구를 거절하는 모양새가 돼 송 대표의 부담도 커진다는 점이다. 소통의 기치를 내세웠던 송영길 대표로서는 3분의 1 이상 의원들의 의총 소집 요구를 외면하는 게 쉬운 결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의총을 차주 열면서도 지도부가 취합한 대권 주자들의 입장을 공유한 뒤 결정할 가능성도 나온다.

이른바 비 이재명계 의원 66명은 지난 18일 ‘경선연기’ 논의를 위한 의총 소집요



구서’를 당 지도부에 제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경선 일정 연기를 요구해온 이낙연·정세균계 의원들이다.

현행 당헌·당규대로라면 대선(2022년 3월 9일) 180일 전인 9월 초까지 대선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 이들은 9월 초까지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방안 논의에 대해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에 이재명계 의원들 역시 반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호 의원은 “동굴에 갇힌 자들의 탐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의원은 “의총으로 넘어갔을 경우 조율의 단계가 아니라 파국의 단계로 갈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의총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이재명계 의원들의 주장이다.

의총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 당헌에는 대통령 후보를 대

선 180일 전까지 선출하되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무위원회 소집 권한은 최고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송 대표는 “천재지변이나 후보자의 유고 상태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유불리에 대한 해석을 두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선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여론 내 반 이재명 연대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저격해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다.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두관 의원도 다음 달 1일 공식 출사표를 낼 예정이다. 이로써 여론 대선 주자는 이 지사,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이광재 의원, 양승조 충남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9명으로 늘어났다. 세를 결합한 이들이 코로나19 상황과 경선 흥행을 고려해 경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송 대표는 대선 경선 흥행을 유도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을 낼 것인지 주목된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김정은 “대화 재개” 北美관계 개선 나서나

한미 북핵수석대표 오늘 협의
金, 내달 중국 먼저 방문 가능성

한국과 미국의 북핵 담당 고위당국자가 21일 서울에서 만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라 양국 당국자가 협의를 통해 북미 관계를 회복할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북미 관계에 앞서 김 위원장이 중국과 대화를 위해 7월 중 방중을 할 가능성이 나왔다.

외교부는 20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9일부터 방한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21일 서울에서 만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김 위원장이 지난 18일 노동장 전원회의를 통해 미국에 대한 비난 발언 없이 “대화에도 대결에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한 뒤 이뤄지는 것이어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노 본부장과 성 김 대표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에 빠진 북미 대화를 재개할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미국의 북핵 협상을 총괄하는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19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이 대화 가능성을 열어줬지만, 당장 협상 테이블로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대화에 나오지 않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상황이라 쉽게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작다. 또 북한은 대화 조건으로 미국의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했었는데 현재까지 미국은 적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며 대외 접촉을 꺼리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위해 먼저 나서서 대북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대화 재개 가능성이 열리면 중국을 먼저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상 기자 jooon@



尹 대선캠프 입주 준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로 알려진 광화문 사무실이 20일 입주 준비로 한창이다. 윤 전 총장은 27일 대권 도전을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젠 ‘윤석열의 시간’

▶1면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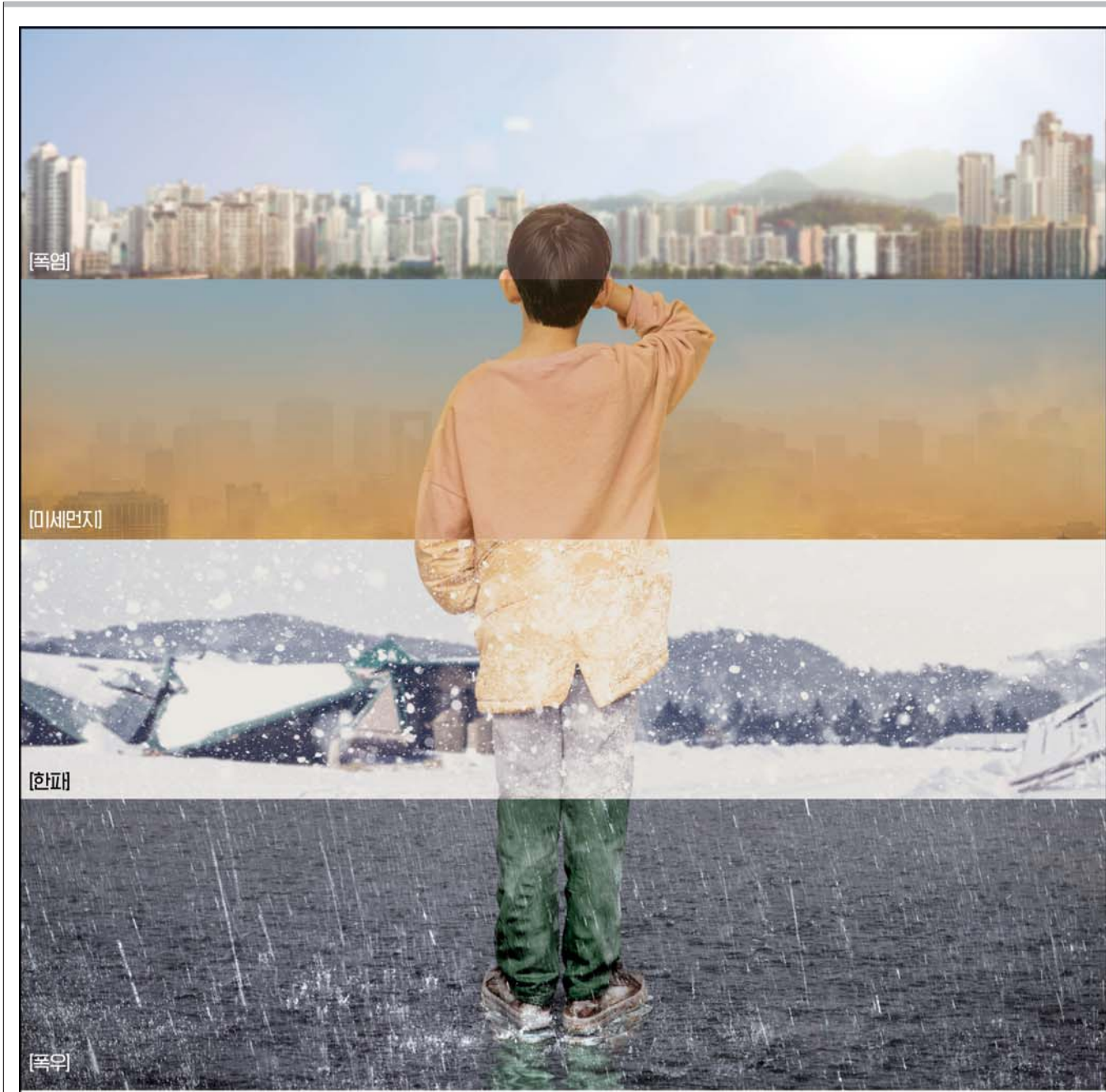
이 대변인은 20일 “일신상의 이유로 직을 내려 놓는다”고 했고, 윤 전 총장은 명쾌한 설명 없이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 “아쉬운 마음으로 수용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을 향한 야권 내부의 검증도 시작했다. 당장 윤석열 X파일이 불거졌다. 진보수 논객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소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얼마 전 윤 전 총장과 처, 장모의 의혹이 정리된 일부의 문서화된 파일을 입수했다”며 “국민 선택을 받는 일은 무척 힘들겠다는 게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민

주당 대표도 “차곡차곡 파일을 쌓아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수처 수사도 윤 전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유평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감찰을 막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의 조사도 조만간 시작된다.

윤 전 총장은 이르면 27일, 늦어도 7월 초에는 출마 선언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그때까지 전국을 돌며 민심을 청취하고 국민의힘 입당과 공식 활동 등에 대해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자신 앞에 놓인 여러 악재를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기후변화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기후변화대응이 힘든 에너지빈곤가정 127만가구



문의
1588-1940
www.childfund.or.kr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기후환경교육과 아동 참여 사업, 저소득가정 주거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지원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력난 덮친 광둥성 ‘글로벌 물류대란’ 진앙지 됐다

해운·제조업 집적지 섰다운 위기
서커우·츠완·난사 등으로 확산
델타변이에 하늘갈마져 막혀

중국의 해운과 제조업 허브인 광둥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이어 전력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뜰이나 압박을 받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한 우려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당국은 지난달부터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항공편을 취소하고, 지역사회를 봉쇄하며 해안선의 무역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컨테이너항 가운데 하나인 선전 옌텐항은 지난달 말 부두 근로자들 사이에서 감염이 확인되면서 거의 일주일간 폐쇄되기도 했다. 그 후 감염률이 낮아져 많은 작업이 다시 시작됐지만, 피해는 면치 못했다. 조업이 재개된 옌텐항은 아직 평소 수준의 운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출항 대기 중인 컨테이너와 선박이 엄청나게 밀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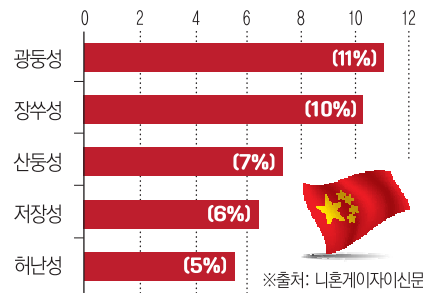
문제는 선전 옌텐항에서 시작된 혼란이 다른 항구로 번져 나갔다는 점이다. 옌텐항의 정체는 서커우, 츠완, 난사 등을 포함한 광둥의 다른 항구에까지 확산했으며, 이러한 도미노 효과는 세계 해운업계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세계 최대 해운 단체인 발틱국제해사협회(BIMCO)의 피터 샌드 수석 애널리스트는 “옌텐항의 지체는 이미 압박을 받는 글로벌 공급망에 추가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사람들은 올해 말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갈 때 그들이 찾던 모든 것을 진열대에서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경종을 울렸다.

특히 최근 선전시에서 전파력이 더 센 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또다시 코로나19가 항만 운영 및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선전시 공항 내

중국 국내총생산(GDP) 상위 5개 지역

(단위 : 조 위안, 2020년 기준)

※ ()는 중국 전체 GDP 대비 비중



식당에서 근무하는 20대 직원이 인도에서 처음 보고된 변이 바이러스 ‘델타’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델타 변이의 감염력은 기존 바이러스 대비 40~80%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전 공항 당국은 이날 이용객에게 48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핵산 검사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한편, 700편 이상의 항공편 운항을 취소했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광둥성은 아예 전력 부족에 휩싸이고 있다. 강우량이 예년에 못 미치고 석탄 가격이 상승하면서 발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력 사용 제한 조치가 잇따라 도입되면서 기업에서는 사태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이달 초 현지 석탄 가격은 1t당 878위안(약 15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70% 급등했다.

전력 당국은 지난달 전력 부족을 이유로 산업 또는 기업별로 공급을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니혼게이지아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광둥성 동관시에 위치한 일본계 금속 부품 메이커 회사는 이달 초 현지 당국으로부터 일주일 동안 이틀씩 정전 조치를 요구받았다. 정전일에는 경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밖에 사용할 수 없다. 만약 규정을 초과해 사용하면 정전 시간이 연장되는 ‘벌칙’이 따른다. 당장은 생산량 확보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이러한 제한 조치가 더 엄격해지고 장기화하면 부품 공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변효선 기자 hsbyun@



19일(현지시간) 세에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대통령 당선 소식에 테헤란에서 그의 초상화를 들어보이고 있다. 테헤란/AP연합뉴스

이란 대선, 강경보수 라이시 당선 ‘핵합의’ 꼬이나

세에드 에브라힘 라이시가 이란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전임과 다른 강경보수 성향의 당선 소식에 국제사회는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19일(현지시간)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에 따르면 라이시 후보는 61.95%의 득표율로 2위 압둘라세르 헤마티(8.4%)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여유 있는 승리였지만, 전체 투표율(48.8%)은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치러진 선거 중 가장 낮았다.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 대선 후보 선정 당시 중도·개혁 성향의 후보들이 줄지어 탈락하자 유권자들 사이에서 투표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선된 라이시 후보는 이슬람 선구자 무함마드의 정통 계승을 추구하는 강경파 인물로, 1988년 정치범 대량 학살과 2009년

정치·인권탄압 혐의 美제재 이력
이스라엘 “테헤란 도살자” 맹비난
중동국가는 ‘축하메시지’ 엇갈려

대선 불복 운동인 녹색운동 탄압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인물이다. 미국 제재 이력이 있는 인사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과 오랜 적대 관계를 이어온 이스라엘은 당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성명을 내고 “오늘날 가장 극단주의자 대통령”이라며 “3만 명 이상을 처형한 테헤란의 도살자”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미국 국무부 역시 “대선이 자유롭고 공정한 과정에서 치러지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문제를 의식해 “테헤란과 간접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동 국가들은 대체로 환영했다. 타키는 “라이시 대통령 임기 동안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아라크는 “진심으로 축하와 축복을 전한다”고 알렸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시리아, 팔레스타인 하마스, 파키스탄 등도 일제히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강경파 인물이 대통령이 됐지만, 이란은 통상 대통령 위에 최고지도자가 있는 만큼 당장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2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예정된 핵합의 복원 회의도 진행될 계획이다.

모하마드 자비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핵합의 복원 논의가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며 “변수가 제거되고 논의의 상황이 깔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대선에 3회 연속 참여할 수 없다는 이란 헌법에 따라 이번 대선에 도전하지 못했다. 로하니 대통령의 임기는 8월까지다.

고대영 기자 kodae0@

“수소값 3분의 1로 낮춰라” 日기업, 그린수소 공동개발

일본이 수소 경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기 분해와 관련된 독자 기술을 통해 설비 투자액을 절감하고, 수소 가격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20일 니혼게이지아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에너지 기업 에네오스(Eneos)와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업 치요다화공건설은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 수소’ 제조 플랜트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수소 가격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인 kg당 330엔(약 3392원)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실현되면 일본 사회 전체의 탈(脫)탄소 행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수소는 화석연료 대신 발전소나 자동차 연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태워도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다. 기후변화 시대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값비싼 비용이 과제로 지목돼 왔다. 일본에서의 유통가격은 현재 kg당 1100엔 선이다. 일본 정부는 이 비용을 2030년에 330엔, 궁극적으로는 220엔으로 인하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30년에 수소 도입량을 최대 300만 톤으로 할 방침을 내걸고 있다. 이 중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했거나, 화석연료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CCUS) 기술을 조합해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 도입량은 42만 톤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네오스 등이 개발 중인 플랜트는 연간 약 30만 톤의 수소생산 능력을 전망한다.

에네오스 등은 오는 2030년 호주 등의 후보지에 플랜트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그린수소 생산 비용 절감 핵심 기술로 꼽는 것이 ‘수소 캐리어’로 불리는 ‘메틸시클로헥산(MCH)’이다. MCH는 상온·상압인 상태로 운반이 가능하다. 수소로 운반하려면 영하 253℃까지 냉각해 액화 전용 운반선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런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기존 MCH 제조 방법은 먼저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를 추출하고, 그다음에 톨루엔과 반응시켜 MCH를 만든다. 에네오스는 특수한 전극을 사용, 물과 톨루엔을 동시에 전기 분해해서 직접 MCH를 만든다. 제조 과정을 단순화하면서 설비투자액을 반으로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량 생산하는 기술은 확립돼 있으며, 앞으로는 전해 장치의 대형화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전기분해에 사용하는 전기는 태양광 등 재생 가능 에너지로 만든다. 후보지인 호주는 재생 에너지를 저렴하고 대량으로 확보하기 쉽다.

변효선 기자 hsbyun@

코로나·인플레 덮친데 100년 만의 ‘최악 가뭄’

‘농업·전력 타격’ 브라질, 최대 경제위기

브라질에 10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이 덮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타격을 받은 브라질 경제는 가뭄까지 더해져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브라질 상파울루시에서 약 750만 명의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던 저수지 수위는 올해 예년의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우기에 강수량이 2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탓이다.

브라질 에너지·광산부는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91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발생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브라질리아대의 호세 프란시스코 곤살베스 생태학 교수는 “가뭄은 브라질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농업 산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강과 저수지에 물이 부족하면 땅을 일굴 수 없어 농업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가뭄은 전 세계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을 높이고 브



브라질 상파울루의 메마른 땅에 브라질 국가가 버려져 있다. 상파울루/신화뉴스

라질 GDP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극심한 가뭄은 아마존 삼림 벌채의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브라질 그린피스의 마르셀루 래터맨 기후 운동가는 “가뭄과 삼림 벌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며 “지난해 아마존 벌채 활동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브라질은 수력 발전이 전체 전력원의 약 65%를 차지한다. 가뭄이 발생하면서 전력 생산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 수력보다 더 비싼 화력 발전으로 전력 비용이 이동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과 소

비비용 전기요금은 올해 최대 40%까지 올랐다.

래터맨 운동가는 “늘어난 가뭄 피해에 해답이라고는 비용이 많이 들고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화력 발전소의 활성화뿐”이라며 “수력과 화력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전력 모델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브라질 정부도 최근 정전에 대해 경고하며 에너지 사용이 한쪽에 쏠리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정부가 전력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에너지 배분 관련 법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50만 명을 돌파했다.

FT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8% 넘게 상승한 상황에서 높은 실업률이 더해져 브라질 내 최빈곤층을 압박하고 있다”며 “브라질은 전체 인구의 9%에 해당하는 1900만 명이 기아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삼성생명

SAMSUNG

다 다른 인생에 다 맞춘 보험.

같은 나이에도
다르게 살아가는 인생
모든 당신의 인생에 따라
끝없이 변화하는 인생보험이 되기 위해

다 다른 인생 즐겁게 나아가도록
삼성생명이 발맞춰 갑니다

인생맞춤
인생보험
삼성생명

〈다음 달 7일 24%→20%〉

조급한 ‘법정최고금리’ 인하 “정책 방향성 맞나 의문”

저신용자 대출 문턱 높아져 불법 사금융 풍선효과 우려
당국 상황반 가동…업체 “대통령 공약, 정치논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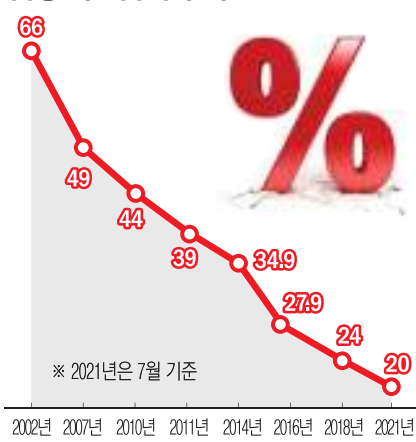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시장 상황과 저신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조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련 업계와 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하는 시행 상황반을 지난 16일 처음으로 가동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다음 달 7일 기준 24%에서 20%로 내려가면서 나타난 시장의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변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에 대해 사전에 시행 상황반을 꾸려 대응하곤 한다. 앞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금융당국은 도입에 대비해 관련 업계와 시행 상황반을 조직했다.

금소법 시행 상황반은 법이 시행된 지 20일 이후에 조직되면서 다소 늦게 움직였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최고금리 인하 제

법정 최고금리 추이 (단위: 연 %)



도 변경에 대해선 3주 전부터 조직해 대응하고 있다. 그만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업계는 물론 이용자 사이에서도 최

고 금리 인하 역효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은 다수의 업체가 퇴출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제도 도입에 대해 시간을 갖자고 요구해왔다.

특히 대부업체는 제1금융권과 달리 조달금리가 상대적으로 비싸 금리를 20%로 인하했을 때 대형 업체를 제외하곤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자와 신용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하면 20% 금리 수준 하에선 거의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라도 최고 금리 인하가 반갑지만은 않다. 특히 저신용자의 경우 금리 인하로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우려가 커졌다.

금융위원회도 이 같은 풍선효과를 인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로 약 13%(31만 6000명)는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되고, 이 중 채무조정·절약 등을 제외하면 3만 9000명의 불법 사금융 유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저신용자가 불

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정책서민금융 공급, 피해 구제 강화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했지만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된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을 줄이고, 대출 문턱 또한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 최고 금리 인하는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법정 최고 금리 인하가 행정권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시장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는다. 제도 부작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도 전에 성과주의 방식으로 조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17일 금융위가 작성한 ‘제5차 금융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A 위원은 “국무회의 의결 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 3개월 뒤에 시행한다고 하지 않았나”고 금융위 담당자에게 물었다.

해당 담당자는 “조항은 간단하게 한 조

항이어서 법제처와 얘기가 돼 있고 3월 30일에 국무회의에 통과한다”고 대답했다. 정부 여당에서 강하게 추진되는 정책으로 인해 법제처 통과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었던 대목이다.

최고금리 인하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하나로,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A 의원은 “3개월 뒤는 6월 30일인데 하루 차이로 빠듯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은 금리 인하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면서도 “중금리대출 부분에서 (타 금융권에서) 밀려 들어온 사담을 커버해야 하는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도 정치권에서 주도해서 나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한다고 보인다”며 “방향성은 옳다고 쳐도 자유로운 시장 체제로 흘러가야 할 금리에 대해 강제로 변형시키는 것에 대해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은행연합회의 속 보이는 금융사 CEO 감싸기

금융 인사이트

‘내부통제 자율 맡겨라’ 세미나
사모펀드 피해자 억울함보다
감독부실 징계받은 CEO 두둔

은행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은행연합회가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단법인 은행법학회는 지난 18일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향’ 특별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은행연합회는 후원을 맡았다. 세미나는 사모펀드 부실 사태로 흠결이 드러난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세미나에 참여한 발표자들은 내부통제제도의 법령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관련 주제 발표를 이어갔다. 발표자들은 내부통제 제도가 자율규제인 점을 내세워 금융회사 스스로 먼저 내부 점검과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과 같은 외부 제재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 발표 내용을 일부 살펴보면 △감독 당국의 역할은 금융업계 실무 모니터링 및 개선안 제안 권고(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융당국 내부통제기준 위반 제재는 지배구조법 제정 취지에 반함(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면 감독 당국의 검사 및 제재 시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놴다.

문제는 현재 일부 금융회사 CEO가 관련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금융감독원이 내린 징계를 두고 행정소송 중이다.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내부 통제 미흡 등이 징계 사유였는데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내부 통제를 문제로 금융회사 수장들이 소송전에 뛰어드는 가운데 내부 통제를 금융회사 자율에 더 맡겨야 한다는 내용의 세미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당연히 갖춰야 할 내부통제 시스템을 빌미로 검사·제재 인센티브를 언급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산업이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설립 취지를 갖고 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사말을 통해 은행이 고객의 신뢰와 시스템 안정을 바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는 은행 산업의 발전이나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억울함보다는 내부통제 징계 이슈에 직면한 금융회사 CEO를 두둔한 행사라는 비난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이슈를 세미나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여론을 몰아가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며 “금융회사 CEO의 권한이 커지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자본이 몰리고, 권력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 CEO가 관여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연합회는 ‘은행 산업’을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 갈수록 금융회사 CEO 개인을 위한 조직으로 그 역할이 변질되고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서지희 기자 jhsseo@

부동산규제 약정 위반 주담대 621억 원 회수

부동산 규제가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약정을 어겨 대출금이 회수되고 신용등급도 떨어진 대출자가 약 7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에서 3월 말 기준으로 가계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 계좌 수는 모두 676개, 위반 대출 잔액은 621억 원(위반으로 상환된 대출액을 뺀 잔액)으로 집계됐다. 이들 은행은 지난달 말 이런 통계를 포함한 ‘가계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행 현황’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약정 위반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처분 조건부 약정 위반 270건(대출잔액 375억 원) △전입조건부 약정 위반 48건(109억 원) △추가주택 구입 금지 위반 676건(621억 원)이다.

‘처분조건부 약정 위반’은 은행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팔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처분하지 않은 경우며, ‘전입조건부 약정 위반’은 새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도 약속과 달리 해당 주택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2018년 9·13 대책은 처분조건부 약정이 필요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1주택 세대 모두와 무주택 세대 일부(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자)가 ‘구입주택 전입 약정’도 함께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2020년 6·17 대책 이후에는 모든 무주택 세대에도 구입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전입 약정을 요구했다.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위반’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놓고 새로 집을 구매한 대출자에 해당하는다. 9·13 대책에 따르면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의료비·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으로 쓰기 위해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1억 원 이내 한도에서 가능한데, 이 자금이 주택 구입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해당 대출 전액 상환 전까지 추가로 주택 등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은행은 주기적으로 약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약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불이익을 안내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위반이 확인되면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채무자는 해당 대출을 즉시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고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된다.

서지현 기자 sjy@

BC카드 ‘페이북 간편투자’ 최대 10만원 혜택

투자금 1% 페이북머니 증정

BC카드는 결제금융플랫폼 ‘페이북’에 펀드 간편 투자 서비스를 강화했다.

BC카드는 최근 신한금융투자와 협업체 페이북에 펀드 간편 투자 서비스를 탑재했다. AI,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주제의 국내 펀드 상품도 갖췄다.

최소 1000원 이상부터 일회성 투자를 할 수 있고, 매월 지정된 날짜에 일정 금액을 설정하는 정기 투자도 가능하다.

서비스 론칭에 따른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페이북을 통한 신한금융투자 CMA(RP형, 약정수익률형)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 CMA 계좌를 페이북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페이북머니’ 충전 계좌로 등록하면 된다.

계좌 등록 후 페이북 금융 내 ‘펀드 간편 투자’에서 12월 말까지 투자를 완료하면 다음 달 20일까지 투자금액의 1%(최대



10만 원)를 페이북머니로 증정한다. 예를 들어 이달에 300만 원(환매 금액은 차감)을 투자했다면 다음 달 20일까지 3만 원을 페이북머니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페이북에서 신한금융투자 CMA를 최초 개설한 고객에게는 페이북머니 1만 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서지희 기자 jhsseo@

4대 코인 거래소만 실명계좌와 심사 돌입

은행들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실명계좌 개설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4대 거래소의 전원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나머지 수십개 거래소 대부분의 무더기 폐쇄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케이뱅크는 실명계좌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에 착수했다. 신한은행은 코빗을,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 케이뱅크는 업비트를 서면 심사·평가하고 있다.

은행들의 서면 점검이 마무리되면 자금세탁 위험과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비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이번에 은행들이 심사에 나선 4대 가상

화폐 거래소 외에 나머지 가상자산 사업자 대부분은 실명계좌 발급을 상담하고 평가를 받을 은행조차 구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3일 금융당국과 20개 거래소의 첫 간담회에서도 거래소들은 하나같이 “실명계좌 발급을 신청하려고 해도 은행들이 잘 만나주지도 않는다”며 “금융위원회에서 좀(은행들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 좀 해달라”고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KB·하나·우리금융그룹 등은 자금세탁 사고에 연루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 작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소들의 요구대로) 당국은 은행에 특정 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을 권유하는 것은 오히려 은행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일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도 있고, 법적으로도 은행 판단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지현 기자 sjy@

〈선박 제조에 필요한 철강재〉

조선사, 하반기 중후판 조달 ‘錢錢금금’

韓 수입량 작년비 51% ‘뚝’

수출국 경기 회복發 자국 수요↑ 철강사 “원자재價 급등 추가 인상” 조선사, 가격 협상 입지 좁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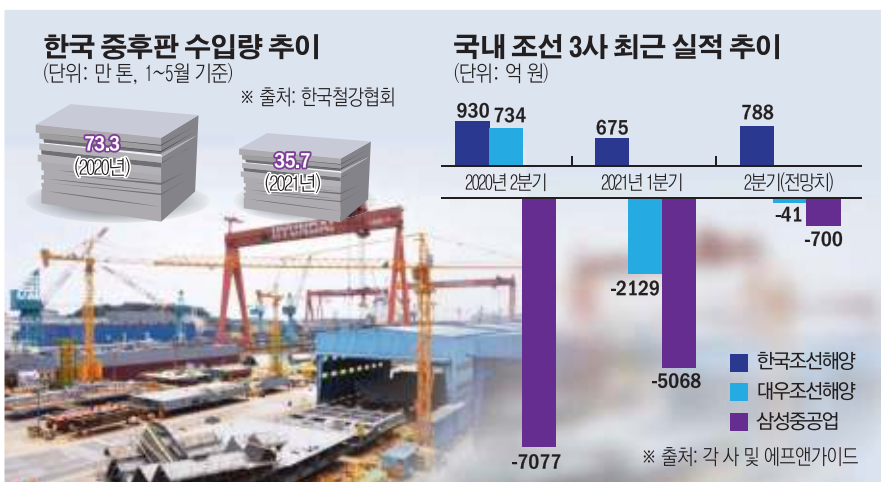
올해 우리나라 중후판 수입량이 작년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중후판은 선박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철강재다. 경기 회복 단계에 접어든 일부 국가에서 제품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수급 다변화가 어려워진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하반기 후판 가격 협상에서 철강사들보다 입지가 좁아졌다.

20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우리나라의 중후판 수입량은 35만 7000톤으로 작년(73만3000톤) 같은 기간보다 51% 감소했다.

수입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산 중후판은 18만7000톤으로 전년(25만3000톤) 동기 대비 26% 줄었다.

중국산 중후판 수입량은 65% 감소한 15만 톤에 머물렀다. 중후판 수입량이 감소한 배경에는 수출국들의 경기 반등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자국 내 철강 수요가 급증했다.

지난해 일본, 중국이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대량의 철강제품을 수출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180도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중후판 수입량 급감으로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난감한 상황에 부딪혔다. 이달부터 진행되고 있는 철강사들과의 후판 가격 협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철강사들은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후판 가격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올해 철광석 가격은 예년보다 2배 이상 높은 톤당 20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올해 4월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상반기) 협상 이후에도 철광석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반기 (후판 가격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협상에서 철강사와 조선사는 후판 가격을 톤당 10만 원 올린 85만 원에 합의한 바 있다.

후판 가격 상승으로 조선사들은 실적 부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우조선해양(-2129억 원)과 삼성중공업(-5068억 원)은 지난해 수주 절벽 등 여러 악재로 올해 1분기 나란히 적자에 머무른 바 있다. 한국조선해양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감소한 675억 원에 그쳤다.

올해 2분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우조선해양(-41억 원), 삼성중공업(-700억 원)은 적자에 그친다고 증권업계는 예상한다. 한국조선해양은 전년 동기 대비 15% 줄어든 788억 원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이뤄진 대량 수주는 당장 실적 개선에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수주 성과는 선박 설계 등의 영향으로 조선사 실적에 빨라야 1년 뒤에 반영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후판 가격에 비례해 선박 가격을 올리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선주들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선가를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시키기 어렵다”며 “후판 가격의 대대적인 인상이 이뤄지면 조선사들이 입을 피해는 상당하다”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신형 아반떼’ 1년 만에 국내 판매 10만대 돌파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세단 아반떼(7세대, 사진)가 출시 1년 만에 국내 판매 10만 대를 넘어섰다. 20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출시한 신형 아반떼가 올해 4월까지 하이브리드 포함 10만4937대 판매를 넘어섰다. 5월까지 누적 판매는 11만1634대에 달했다.

지난해에만 7만7385대를 판매한 아반떼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3만4249대가 팔리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올해 누적판매 기준 △그랜저(4만3347대) △카니발(3만9605대)에 이어 세 번째다. 현대차의 준중형 세단은 1990년 1세대(엘란트라)를 시작으로 5년마다 세대 변경 모델을 내놓는다.

작년에 나온 7세대 아반떼는 2018년 선보인 콘셉트카 ‘르필루즈’의 디자인을 밑그림으로 했다.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안전·편의 장비를 갖췄다는 평가다.

아반떼는 경차와 준중형차 사이를 메웠던 소형차(현대차 엑센트, 기아 프라이드 등)가 내수에서 단종되면서 소형차 수요까지 아우르고 있다.

수출도 오름세다. 올해 들어 5만1101대가 수출돼 현대차그룹에서는 △코나(8만8101대)와 △니로(5만1402대)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수출 상위 10차종 가운데 유일한 세단형 승용차가 아반떼였을 만큼,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거거익선” LG, 세계 첫 83형 올레드 TV 출격

4K 올레드 TV 중 가장 큰 화면 고화질 기반 콘텐츠 몰입감 높여 세계 프리미엄 수요 공략 박차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83형 올레드 TV를 출시하며 초대형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올레드 대세화를 이끈다.

20일 LG전자는 83형 올레드 TV를 이달 내 한국과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시장에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4K(3840×2160) 해상도 올레드 TV 가운데 가장 크다. LG전자는 48·55·65·77·83·88형까지, 업계에서 가장 다양한 크기의 올레드 TV 제품군을 갖추고 있다.

70형 이상 LG 올레드 TV는 한국 출시 모델 기준 지난해 7개에서 11개로 늘었다. LG전자는 초대형 올레드 TV를 앞세워 고화질·대화면 프리미엄 TV 수요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83형 올레드 TV를 출시하고 고화질·대화면 프리미엄 TV 수요를 적극 공략한다. 모델명이 LG 올레드 TV(모델명: 83C1)를 소개하고 있다.

최근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게임 등 고화질 콘텐츠를 초대형 TV에서 즐기려는 프리미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 올레드 TV 시장도 이러한 수요에 따라 올해 초대형 중심으로 지난해 대

비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83형 올레드 TV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1에서 게이밍(Gaming)과 영상 디스플레이(Video Display) 부문에서 각각 혁신상을 받아 2관왕을 차지했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는 이제

품에 대해 “입력 지연을 줄이는 빠른 속도, 4K 해상도 HFR(High Frame Rate) 등 최고의 기능들로 가득해 게임을 즐기거나 스포츠를 시청할 때 놀라운 즐거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기존 올레드만의 장점인 4S(Sharp, Speedy, Smooth, Slim)를 기반으로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초대형 화면으로 즐길 수 있다.

또 장시간 시청해도 눈이 편안해 고화질의 콘텐츠를 몰입감 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청 환경을 제공한다.

이 제품의 국내 출하가는 1090만 원이다. LG전자는 이달 말까지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100만 원 적립금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LG전자 TV 상품기획 담당 백선필 상무는 “대형화 추세가 가속화되는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보다 많은 고객에게 LG 올레드 TV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내년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다”

경총 ‘통계지표’ 분석 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와 비교하면 최소한 인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총은 법에 명시된 4대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와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임금 결정기준인 지불능력의 각종 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심의에는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29개국 중 6위이며, 특히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경총은 최근 5년(2016~2020)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로 높지만,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 1.7%(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8%)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배 측면에서 경총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무협, 무역진흥자금 융자금리 내달부터 최대 0.75%p 인하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진흥자금의 융자금리를 최대 0.75%p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 인하 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마케팅, 원자재 조달 등 수출비용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 일괄 2.75%였던 융자금리가 회원사 등급에 따라 실버등급은 2.5%, 골드는 2.25%, 로얄은 2.0%로 낮아진다. 업체당 비용절감 효과는 평균 45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융자 신청 기준도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에서 2000만 달러 이하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완화했다. 무역진흥자금 정기융자는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총 3년(2년 거치, 1년 분할상환)이다. 노우리 기자 we1228@

SK이노, 임직원 플라스틱 재활용품 장터 오픈

재활용 아이디어 공모전도 시행 “사업 넘어 일상 속 ESG경영 실천”

SK이노베이션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제품을 체험하고 여러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행사를 열었다.

SK이노베이션은 20일 ‘플라스틱 페스티벌’〈사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페스티벌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된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Plastic)과 플러스(Plus)의 합성어로 플라스틱이 인류와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넘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SK이노베



이션은 폐플라스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활용 혁신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플라스틱 페스티벌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얻은 원료로 제작됐다. SK이노베이션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친환경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이 판매된다. 우시산의 캄팍스·여름용 담요, 몽세누의 티셔츠, 라이트루트의 태블릿PC 파우치 등이 판매된다.

SK이노베이션은 서울, 울산, 인천, 서산, 증평 등 전국 사업장에서 구성원들이 제품 품질과 디자인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전시장을 설치했다. 구성원들은 사내물 ‘하이하켓’을 활용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플라스틱 재활용 아이디어 공모전도 시행한다. 집단 지성으로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의도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밸류크리에이션 센터장은 “ESG 경영은 사업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실천해야 할 만큼 중요한 화두”라며 “플라스틱 페스티벌은 산해진미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함께 SK이노베이션의 그린밸런스2030과 ESG 경영을 위한 기업문화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dy@

이스타 ‘기사회생’ 계기로 LCC 재편 불붙는다

국내 LCC 9개 ‘포화상태’ ... 코로나 악재로 생존 위협
항공 빅2 통합 맞물려 저비용항공사 합종연횡 불가피

회생절차 중인 이스타항공이 부동산기업 ㈜성정에 인수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저비용항공사(LCC) 업계의 재편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회복국면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최종 인수자를 21일 확정한다. 새 주인으로는 우선매수권을 가진 부동산기업 성정이 사실상 결정됐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효력이 정지된 항공운항증명(AOC)을 다시 취득하고 항공기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비를 마쳐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벼랑 끝에 몰렸던 이스타항공이 살아나게 되면서 국내 LCC 시장에서는 9개 항공사가 경쟁하게 됐다.

업계 1위인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대한항공의 자회사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의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에 더해 신생 항공사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의 등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6개 항공사에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앞서 시장에서는 코로나19로 업황이 침체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부 항공사가 도태되고 LCC 수가 줄어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내 LCC 수가 시장 규모에 비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항공사들은 투자 유치 등으로 생존책을 찾았다. 에어프레미아는 사모펀드 JC파트너스 컨소시엄에 인수됐다. 티웨이항공 또한 사모펀드 JKL과 트너스의 투자를 유치해 유상증자로 자금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2~3년간 LCC 업계의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2024년 이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산하 LCC 3사가 통합된다.



이스타항공 항공기.

이에 통합 LCC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LCC들이 합종연횡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지금 시장 자체가 과도기라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통합 LCC는 기업결합심사 등을 거쳐야 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대형 LCC가 등장하면 시장에서 제주항공이나 티웨이항공, 회생하는 이스타 등 다른 LCC들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2~3년은 재편기에 접어들 것”이라며 “선진국의 경우 시장이 안정되면 과점으로 재편이 된다. 우리도 항공사들이 묶고 묶이면서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주혜 기자 winjh@

한화큐셀, 차세대 태양광소재 개발 박차

유·무기 소재 경력사원 채용
대학·소재기업들과 컨소시엄
페로브스카이트 효율성 연구

한화큐셀이 차세대 태양광 소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한화큐셀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의 유·무기 소재 담당 경력사원을 채용하고 있다.

△용액 공정을 위한 유무기 재료 연구 △유무기 재료 합성 및 특성 분석 △금속 산화물 특성 분석 기본 소자 특성 분석 등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태양광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전기로 바꾸는 발전 방식이다. 빛 에너지를 최대한 전기 에너지로 많이 바꿔야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진다.

현재 대다수 태양광에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실리콘이 탑재됐는데 최근 새로운 소재로 페로브스카이트가 떠오르고 있다.

무기물과 유기물 등을 섞어 만드는 페로브스카이트는 전기전도성이 높은 결정구조를 갖췄다.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저렴하고,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차세대 태양광 소재로 꼽힌다.

가볍고 제조 공정이 간편해 생산비용이 실리콘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점도 강점이다.

다만 수분과 열 등 외부 환경에 취약하다는 단점 때문에 아직 상용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와 에너지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에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연구개발에 2000만 달러(약 217억 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에서는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창립한 옥스퍼드PV가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하이브리드 전지의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하고 있다.

그 밖에 폴란드 사울 테크놀로지스, 중국 선테크와 트리나솔라 등 업체들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 중이다.

국내에서는 한화큐셀이 선두주자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말 성균관대, 고려대, 숙명여대, 충남대, ㈜엔씨디, ㈜야스, 대주전자재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셀(탠덤 셀)을 개발하고 있다.

탠덤 셀은 기존 실리콘 태양광 셀 위에 페로브스카이트를 쌓는 형태로 만든다. 실리콘 태양광 셀보다 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앞으로 3년간 연구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2023년에 상업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Tel. 1661-9316 | dieuamour.co.kr



DIEUAMOUR
No. 3101 Bellezza Line



LG전자가 영국의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손잡고 'LG 시그니처(LG SIGNATURE)'의 초(超)프리미엄 가치를 알린다. 공식 파트너인 LG전자는 LG 시그니처를 앞세워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창단 75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공연 시즌을 후원한다. 사진제공 LG전자

LG시그니처의 가치, 음악으로 만나요

LG전자, 英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식 파트너 선정

LG전자가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손잡고 'LG 시그니처(LG SIGNATURE)'의 초(超)프리미엄 가치를 알린다.

LG전자는 영국의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RPO)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됐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프리미엄 브랜드 LG 시그니처를 앞세워 RPO의 창단 75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공연을 후원한다.

LG 시그니처는 '기술에 영감 주는 예술, 예술을 완성하는 기술'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기술 혁신 기반의 압도적인 성능 △본질에 충실한 정제된 디자인 △차원이 다른 혁신적인 사용성을 지향하는 LG전자의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다.

LG전자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공연을 즐기는 고객에게 LG 시그니처의 브랜드 철학뿐 아니라 기술적, 예술적 가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자는 LG 스마트 TV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올 9월 영국 런던의 로열 알버트 홀에서 열리는 RPO 창단 75주년 기념 콘서트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8K 해상도로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LG전자 영국법인장 이범섭 상무는 “LG 시그니처의 브랜드 철학과 진정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문화·예술·스포츠를 활용한 프리미엄 마케팅을 지속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CJ ENM ‘콘텐츠 사용료 인상’ 꺼낸 3가지 이유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 심화, 투자 재원 마련 필요성 대두
매출 부진 속 OTT 급성장... 자회사 ‘티빙’ 밀어주기 분석

CJ ENM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인터넷TV(IPTV) 3사 간 콘텐츠 사용료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CJ ENM이 ‘콘텐츠 제값 받기’를 주장하는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IPTV 3사와 CJ ENM의 임원들은 이달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한국IPTV방송협회에서 만났다. 최근 계속된 콘텐츠 사용료 갈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양 측의 입장이 좁혀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에 3사가 개별 협상을 하고 있는 만큼 1대 3으로 만난 자리에서 실질적인 협상안이나 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IPTV협회 관계자는 “실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원만하게 풀 수 있게 얼굴 보는 자리 정도로 알고 있다”며 “3사가 CJ ENM과 콘텐츠 사용료도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CJ ENM은 IPTV 3사를 상대로 전년 대비 25% 이상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가 운영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는 각각 1000%, 125% 인상을 요구했다. ‘콘텐츠 제값 받기’라는 논리와 ‘지나친 인상’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CJ ENM이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카드를 뺀 데에는 그간 콘텐츠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명분에 더해 실리적인 이유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 번째 배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영화, 음악 분야에서 매출에 타격을 받았

다는 점이다. 지난해 CJ ENM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5% 감소했다. 특히 영화 부문의 매출액은 59.5% 줄어 반 토막 났고, 영업이익도 135억 원 적자를 냈다. 음악 부문도 콘서트 사업 등이 중단돼 46.2% 줄어들었다. 이처럼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액이 줄어드는 가운데 KT 시즌과 같은 OTT 시장은 오히려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성장했다. CJ ENM이 콘텐츠 값을 더 받아야겠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OTT 시장의 성장으로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이 치열해진 점도 요인이다. 업체들 간 콘텐츠 투자 경쟁이 불붙으면서 이에 따른 재원 마련의 필요성도 커졌다. CJ ENM은 최근 2025년까지 5조 원을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보다 앞서 넷플릭스는 올해 한국 콘텐츠에 5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고, 웨이브는 2025년까지 콘텐츠에 1조 원 투입을 예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은 CJ ENM의 OTT인 티빙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례로 넷플릭스는 올해 4월 ‘30일 무료 체험’을 종료했고, 계정 공유를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고 나섰다.

지난달 말 CJ ENM 간담회에서 투자에 따른 회수 고민은 드러났다.

당시 강호성 CJ ENM 대표는 “미국의 경우 안정적인 제작비 리쿱(투자 뒤 수익 회수) 구조가 자리잡힌 반면 국내 시장 구조는 콘텐츠 사용료로 제작비의 3분의 1 밖에 채우지 못해 광고·협찬·해외 시장 공략 등 부가적인 수익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K-콘텐츠를 지키기 위해선 이 같은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IPTV 업계에서는 CJ ENM의 사용료 인상이 자회사인 티빙 밀어주기와도 연관돼 있다고 주장한다. 이달 12일 LG유플러스의 ‘U+모바일tv’에서 CJ ENM 실시간 채널이 중단됐을 당시 LG유플러스는 입장문에서 “자사 OTT인 ‘티빙’에만 콘텐츠를 송출해 가입자를 대거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CJ ENM을 규탄했다.

티빙의 기세는 실제로 두드러진다. 지난 달 닐슨코리아클릭 데이터 기준 티빙의 월 이용자(MAU)는 334만 명을 기록해 지난해 10월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후 110만 명 이상 늘어났다. 종전 최고 수치는 올해 3월 기록한 327만 명으로 지난달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셈이다. 티빙은 지난해 10월 CJ ENM으로부터 독립한 뒤 누적 유료 가입자 수가 63% 증가했다.

CJ ENM 측은 IPTV의 ‘티빙 밀어주기’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한다. 오히려 티빙과 동등한 구조에서 계약하기 위해 LG유플러스의 U+모바일tv, KT 시즌에 실사용자 수를 요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CJ ENM은 U+모바일 tv 송출 중단에 관해 “기존에 LG유플러스 OTT 공급 대가로 받아왔던 금액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는 이번 협상 결렬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이용자 수조차 공유하지 않은 LG유플러스의 협상 전략으로 부득이하게 실시간 채널 중단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설사 ‘티빙 밀어주기’라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는 반박도 있다. 예컨대 디즈니플러스를 론칭한 디즈니는 넷플릭스에서 콘텐츠를 뺐고, 한국 진출을 앞두고는 웨이브에서도 디즈니 콘텐츠를 거둬들였다. 오리지널 콘텐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때에 키를 쥔 쪽은 콘텐츠를 가진 쪽이라는 의미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LG유플러스, 백제 문화유산 ‘5G 실감형 콘텐츠’ 선보인다

공주·부여 28㎐망 기반 제작
역사적 공간 증강현실로 감상

LG유플러스가 공주와 부여에서 5G 28㎐망 기반 실감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20일 공주시, 부여군,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진흥원)과 함께 백제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한 5G 28㎐망 기반 실감형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에 의해 선정된 올해 신규 공모사업으로 실감형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보급 확산을 위해 약 4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유네스코(UNESCO)에 등재된 백제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5G 미디어아트 공연, 유산 향유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각 기관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콘텐츠 기획,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홍보를 위해 유기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동 펀드 조성 △세계문화유산 홍보를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지원 △5G 영상 관람이 가능한 기가급 네트워크 구축 △기업, 지자체,진흥원의 상생을 위한 시너지 방안 모색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7월부터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하는 공간을 마련한다. 부여군은 8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부여 정림사지에, 공주시는 9월 25일부터 10월 24일



까지 공주 공산성 등에 행사를 개최해 백제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조명한다.

LG유플러스는 5G 28㎐ 네트워크를 더해 진흥원의 미디어아트와 야외조명기술을 연계시킨다. 프로젝트 맵핑, 레이저, 대형 LED, 메쉬스크린, 광섬유, 아크릴 조형 등으로 백제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관람객에게 다채롭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에 5G 28㎐ 체험공간을 마련해 세계 최초 5G 증강현실(AR) 글래스인 ‘U+리얼글래스’로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관람객들은 역사적 공간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증강현실로 감상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진흥원과 함께 인기 아이돌그룹이 공주와 부여의 문화유산을 둘러보고 소개하는 콘텐츠를 공동 제작할 계획이다. 4K로 제작될 해당 콘텐츠는 LG유플러스가 의장사로 있는 글로벌 5G 콘텐츠 연합체 ‘RX 동맹’을 통해 해외 일부 지역에서 모바일 콘텐츠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웅진씽크빅 “에듀테크 1위 수성 총력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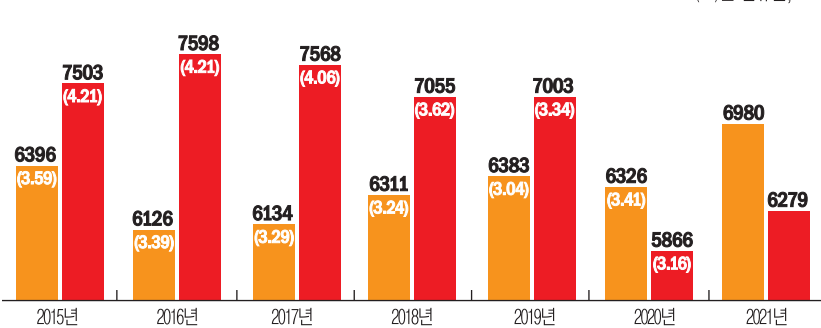
지난해 출판 교육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 대교를 제친 웅진씽크빅이 올해도 기세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웅진씽크빅은 점유율 역전의 밑거름이 된 ‘에듀테크’ 라인업을 강화하며 격차를 키우는 데 전력투구하고 있다.

20일 웅진씽크빅이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웅진씽크빅과 대교는 지난해 별도 매출액 기준 점유율에서 역전한 모습을 보인다. 웅진씽크빅은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 보고서’와 각사 공식 자료를 참조해 점유율을 산출했다. 양사의 점유율은 2015년만 해도 대교가 4.21%, 웅진씽크빅 3.59%로 대교가 크게 앞서 있었다. 이듬해 점유율 격차는 각각 4.21%, 3.39%로 좁아졌다가 2018년부터 좁혀지기 시작했다.

웅진씽크빅이 에듀테크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부터다. 웅진씽크빅은 2014년 도서와 학습 콘텐츠, 스마트 기기인 북패드를 결합한 회원제 학습·독서 서비스인 ‘웅진북클럽’을 출시했다. 이어 2018년 인공지능(AI) 학습 솔루션을 개발하고 AI 전과목 맞춤형 학습지인 ‘AI스마트울’ 서비스를 시작했다.

여기에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방문수업에 강점이 있던 대교가 사업에 차질

웅진씽크빅·대교 출판·교육 서비스 비교
(단위: 억 원, 2021년은 추정치, 대교는 연결)



출판·교육서비스 시장 점유율
코로나에 지난해 대교 첫 추월
스마트울중학 등 잇따라 론칭
14개월 만에 회원 10만명 돌파

을 빚으면서 양사의 점유율은 웅진씽크빅 3.41%, 대교 3.16%로 뒤집혔다.

웅진씽크빅은 에듀테크 연구개발과 라인업을 확충하며 양사의 격차를 더욱 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작년 299억 원을 에듀테크 연구개발에 투입한 웅진씽크빅은 올해 350억 원으로 규모를 더욱 키운다. 또 최근 스마트울중학 렌탈, 스마트울키즈, 스마트울예비초 등을 잇달아 론칭하며 라인업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실제 가입자 증대로 이어져 스마트울 출시 14개월 만인

올해 초 10만 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올해에도 웅진씽크빅이 대교와의 선두권 다툼에서 2년 연속 앞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컨센서스에 따르면 웅진씽크빅의 올해 매출은 6980억 원, 대교는 6279억 원이다. 영업이익의 경우 웅진씽크빅은 370억 원으로 91% 신장이 예상됐다. 대교는 1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전년 창사 이래 적자라는 쇼크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차증권 박종렬 연구원은 “웅진씽크빅이 교육문화, 스마트울 라인업 확장에 따른 성과 등으로 향후에도 양호한 실적이 지속될 것”이라며 “또 플랫폼 영역에서 사업을 확장,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는 물론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상생·혁신 실천 ‘존경받는 기업인’ 발굴”

중기부, 내달 9일까지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9일까지 존경받는 기업인 발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존경받는 기업인은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혁신’의 기업경영을 실천해 경제에 기여하는 모범 중소기업인을 말한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47명이 선정됐다.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기관과 국민이 추천할 수도 있다.

직접 신청은 접수 기간 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기관 추천은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공공기관, 협·단체, 지자체 등에서 지역 내, 회원사 등 존경받을 만한 기업인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추천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은 주변에서 존경받을 만한 기업인을 중기부 누리집 내 ‘정책 → 국민추천 → 존경받는 기업인’에 접속해 직접 추천도 가능하다.

올해는 국민이 더 제감하고 공감하는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을 위해 국민심사단의 평가점수 비중을 30%에서 50%로 높여 일반 국민이 선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했다. 평판 검증은 ‘자가 체크리스트’, ‘지역 평판조사’, ‘공개검증’ 등 3단계로 확대해 검증을 강화했다. 또 산업재해를 일으킨 적이 있거나 주 52시간제를 미준수, 임금체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인을 더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올해는 신청서류가 기존 9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돼 신청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최대 +50_{yd} 더 나가는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

BIG BANG

문의) 1544-8070

피자 굵고 건강제품 승부, 새 먹거리 찾는 유업계

서울우유, 직접 만든 치즈로 피자·부리또 냉장 HMR 출시 ‘매일’ 단백질·‘남양’ 이유식 우유급식 중단에 활로 모색

유업계 1위 업체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서울우유)이 피자, 부리또 등 냉장 가정간편식(HMR)에 출시표를 던졌다. 서울우유 측은 완제품 형태로 피자 3종(토마토치즈, 차돌불고기, 매콤닭갈비)과 부리또 2종(치폴레 치킨, 데리야끼 불고기)을 배달 중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HMR에는 서울우유가 보유한 제조공법으로 만든 100% 국산 치즈를 사용한다. 서울우유가 냉장 HMR 형태로 제품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원유 소비량이 줄어

국산치즈 활용 차원에서 출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유업계가 카테고리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저출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유급식까지 중단되면서 급격히 줄어든 우유소비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업계는 단백질, 가공유 신제품을 내놓고 건강기능식품, HMR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영역 확장하는 서울우유, 왜?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유업계에는 무거운 압력이 감돌았다. 수년째 저출산 여파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한 데다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치면서 우유 급식 중단 사태가 잇달았던 탓이다. 특히 전체 매출에서 우유 급식 비중이 적지 않은 업계 1위 서울우유는 전체 매출에서 급식 차지 비중이 직전 연도 10~20%에서 8~9%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남양유업 역시 절반 아래로 감

소해 4~5%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사업 다각화로 지난해 매출 반전에 성공하며 신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서울우유의 지난해 매출은 1조 7548억원으로 2019년과 비교해 1.8%, 영업이익은 594억 원으로 6.3% 늘면서 사상 최고치 실적을 기록했다. 가공유, 멸균우유 등의 신제품을 쏟아내며 카테고리를 확장한 점이 매출 선방에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우유는 달고나 우유, 살롱밀크티, 강릉커피 등 젊은 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가공유 개발에 꾸준히 힘써왔다.

이번에 내놓는 피자, 부리또 냉장 HMR 역시 활로 모색의 일환이다. 특히 이들 신제품은 서울우유가 직접 제조한 ‘치즈’를 핵심 차별화 포인트로 삼는다. 피자 반죽과 브리또 도피아에 서울우유의 원료를 활용하는 식이다. 앞서 서울우유가 축적된 치즈 제조기술력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무관치 않다.

◇매일유업은 단백질로 활로 모색=매일유업은 일찌감치 단백질로 승부수를 띄우며 돌파구를 마련한 케이스다. 2018년 10월 출시한 성인영양식 브랜드 ‘셀렉스’를 필두로 유업계의 단백질 시장 확대의 포문을 열었다. 셀렉스 누적 매출은 출시 이후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올해 셀렉스 목표 매출액은 700억 원이다.

단백질로의 카테고리 확장 효과는 매출로도 이어졌다. 매일유업 역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1조4631억원으로 5.0%, 영업이익은 865억 원으로 1.4%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 매출을 기록했다.

남양유업은 이너케어를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배달 이유식을 내세운다. 특히 지난해 론칭한 배달 이유식 ‘케어비’를 필두로 남양유업이 기존부터 해온 유아먹거리와 가정배달 인프라를 활용해 시너지를 보

겠다는 의도다. 지난해 론칭 이후 케어비 사이트 방문자 수는 200만 명, 체험고객 수는 2만 2000여 명을 돌파했다.

다만 ‘불가리스 사태’로 큰 홍역을 치른 터라 남양유업을 인수한 한앤컴퍼니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짤지 주목된다. 과거 남양유업이 신사업 개척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며 기존 사업에서 확장하는 방향으로 카테고리 개발에 힘썼다면, 한앤컴퍼니는 ‘볼트온 전략’을 통해 사업 다각화에 적극적으로 힘을 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앤컴퍼니의 볼트온 전략은 이미 한앤컴퍼니가 보유한 사업과 새로 인수한 사업을 연결해 시너지를 꾀하는 것”이라면서 “남양유업이 보유한 배달 HMR 브랜드 케어비와 한앤컴퍼니가 인수한 사업 중 대한항공 기내식을 합쳐 다양한 HMR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오프라인 유통 회복... 백화점·편의점 다시 웃는다

백신접종에 2분기 실적 청신호 신세계百 매출 33%↑ 흑자전환 여행 늘어 편의점도 실적 개선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따뜻해지는 날씨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백신 접종에 따른 종식 기대감 등 여러 요인이 합쳐져 오프라인 소비 수요가 늘고 있어 서다. 지난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휘청였던 백화점과 편의점의 2분기 실적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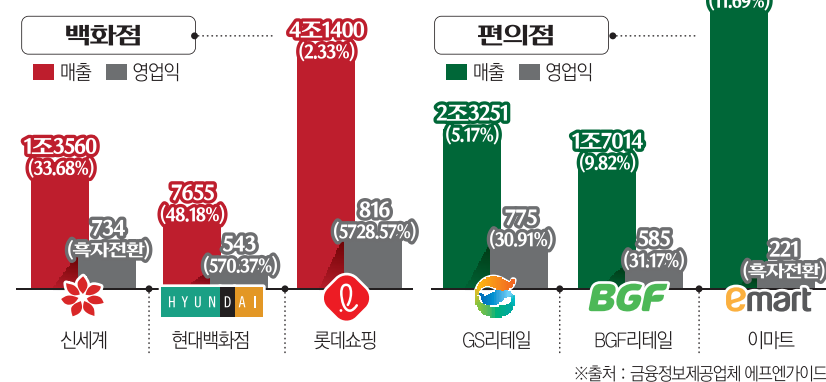
백화점은 보복소비 효과에 웃음짓고 있다. 17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신세계는 올 2분기 전년보다 33.7% 늘어난 1조 3560억 원의 매출과 73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는 지난해 백화점과 면세점이 동반 부진해 2분기 486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한 바 있다.

현대백화점과 롯데쇼핑도 호전된 성적표를 받을 전망이다. 현대백화점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각각 48.2%, 570.3% 늘어난 7655억 원, 54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복소비 영향에 여의도 더현대서울 오픈 효과가 동반된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백화점이 속한 롯데쇼핑 역시 영업이익이 전년(14억 원)보다 크게 개선돼 81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

살아나는 오프라인 백화점·편의점 실적

(단위 : 억 원) ※ *실적은 2분기 전망치, ()는 증감률, 전년 대비 기준



다. 업계 전반적으로 보복소비 영향으로 해외 명품 매출이 호조세를 보였고, 외출이 늘어 패션, 잡화 매출도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백화점업계는 올해 수년만에 이뤄진 신규 출점을 통해 매출 확대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올초 현대백화점이 여의도에 더현대 서울을 오픈한 데 이어 8월에 롯데백화점이 동탄, 신세계백화점이 대전에 점포 출점을 앞두고 있다.

편의점도 실적 개선을 위해 힘을 내고 있다. 업계 1위를 다투는 경쟁자인 GS리테일과 BGF리테일 모두 전년 대비 매출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전년 대비 각각 9.8%, 31.2% 늘어난 1조7014억 원, 585억 원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분기 전년의 일회성 이슈(광교몰 매각) 때문에 실적이 쪼그라들었던 GS리테일도 2분기엔 개선된 성적표를 받

았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30.9% 늘어 77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임수연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특수 입지 점포 매출 회복으로 실적 개선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백신 접종에 따른 코로나19 종식 기대감으로 오프라인 수요가 증가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3월부터 학교 개학에 따른 대면 수업 재개와 해외 여행 대체제 성격의 국내 여행이 늘어난 점도 편의점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식 수요 증가와 신선식품 증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오프라인에선 유행하게 제몹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는 대형마트도 2분기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2분기 코로나 타격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했던 이마트는 올해 매출 5조 7945억 원, 영업이익 221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입술 모양 소파 구경오세요”

현대백화점은 다음달 4일까지 무역센터점 4층에서 ‘징디자 인아트’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장에서는 가구계의 팝아트로 유명한 ‘구프람’의 입술 모양 소파 ‘보카소파(1000만 원대)’, 이탈리아 디자이너 가구 브랜드 ‘드라이데’의 ‘네모의자(300만 원대)’ 등을 선보인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다시 비행기 뜬다” 들썩이는 유통가

7월 ‘트래블 버블’ 겨냥 홈쇼핑·여행사 패키지 상품 잇따라

방역 신뢰 국가와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 권역)’이 이르면 7월부터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행 수요를 잡기 위한 유통업계의 행보가 빨라졌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 관리에 대해 서로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상대국 국민이 입국했을 때 자가 격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GS샵은 20일 오후 5시15분부터 종합여행사 인터파크투어의 △‘스페인 일주’(6박7일), △‘스위스 이탈리아’(7박8일)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6박7일) 패키지 여행 상품을 판매한다. 코로나19 발생 직전 TV 예능프로그램 등에 소개되어 인기가 높았던 여행지, 또는 물가가 비싸 합리적인 가격대로 가기 힘들었던 여행지들을 엄선했다.

전 일정에는 항공권을 제외한 숙박, 관광, 식사(특식 포함)가 포함됐다. 판매가는 모두 49만9000원으로 다른 패키지 여행과는 달리 전 일정 4성급 호텔(스위스 1박 제외)에서 숙박한다는 차별점이 있다. 최대 1억원 여행자보험도 포함되어 있다. 패키지 여행은 양국 간 자가격리가 해제(외교부 공지)된 후 1년 안에 갈 수 있다.

GS샵 전우정 MD는 “최근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 중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핫한 여행지를 우선적으로 엄선해 소개한다”며 “억눌렸던 여행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만큼 GS샵의 합리적인 여행 패키지로 미리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인터파크투어는 자사 홈페이지 내 ‘얼린 여행’ 상설관을 만들어 해외여행 상품 판매와 전세계 여행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백신여행 상품을 출시했다. 얼린 여행 시리즈는 공식적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해지는 시점부터 1년간 이용 가능한 상품이다.

해외여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제공하는 ‘인터파크투어는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카테고리도 마련했다. 또한 백신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 맞고 떠나는 안전여행 가이드’ 기획전을 진행한다. ‘스위스·동유럽 5국8일’, ‘독일·체코 2국8일’, ‘동유럽·발칸 5국10일’, ‘서유럽4국10일’ 등의 상품을 최대 출발 7일전까지 무료 취소 가능한 조건으로 판매한다.

티몬은 27일까지 해외여행 재개 시 사용할 수 있는 ‘해외여행 할인권’을 9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할인권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고, 출발 불가 상품의 경우 할인권 전액을 환불할 예정이다.

최근 들어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항공권 예약이 몰리고 있다. 코로나19 잔여 백신 예약 서비스 오픈 직후 일주일간(5월 27일~6월 2일) 위메프의 해외 항공권 예약은 직전 일주일 대비 5.4배(442%)나 급증했다. 노랑풍선이 CJ온스타일을 통해 선보인 ‘유럽 인기 일정 3선’ 패키지(PKG) 여행 상품은 지난 6일 1시간 방송에서 5만2000명이 예약하며 200억 원의 결제액을 기록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세계인 올린 매운맛 ‘대박라면 고스트페퍼’ 노브랜드 상륙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고스트페퍼 컵라면을 노브랜드 전문점을 통해 국내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됐다.

20일 이마트 노브랜드는 7월 14일까지 한 달간 ‘대박라면 고스트페퍼 스파이시 치킨 컵라면’을 (이하 대박라면 고스트페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3% 할인한 980원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대박라면 고스트페퍼’는 신세계푸드와 말레이시아 식품업체 ‘마미다블데커’가 함께 설립한 ‘신세계마미’에서 2019년에 선보인 컵라면이다.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트졸로키아(Bhut Jolokia)’를

주재료로 사용해 매운맛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부트졸로키아의 스코빌 지수는 청양고추보다 최대 250배 매운 100만 SHU로 매운맛을 좋아하는 많은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대박라면 고스트페퍼’는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중국, 미국,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6개 국가에 진출, 2020년에만 700만 개가량 판매되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대박라면 고스트페퍼’는 올해 6월 초 노브랜드 전문점에 상륙했다. 상륙 첫날부터 고객 사이에서 극



상의 매운맛으로 입소문을 타며 출시 열흘 만에 5000개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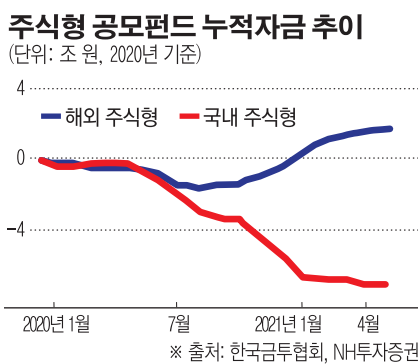
이마트 노브랜드 윤진석 라면 바이어는 “고스트페퍼 컵라면은 한국의 매운맛을 세계에 널리 알린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매운맛을 선호하고 도전을 즐기는 고객들을 위해 한국에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국내→해외’ 주식형 펀드 이유 있는 머니무브

코스피 활황 개미 직접투자 선호
신규상품 적어 석 달간 1.4조 이탈
해외펀드 회복 기대감 1.9조 유입
베트남 30%·인도 26% 수익 쏠쏠

고등학교 교사인 이래연(38)씨는 매달 30만 원씩 투자하던 국내 주식형 펀드를 이달 초 환매했다. 3년 전 은행 직원이 “3~4년 투자하면 적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을 것”이라며 추천한 상품이었다. 예상대로 이씨의 펀드 수익률은 코로나19사태가 터진 지난해 3, 4월을 제외하면 그동안 플러스 수익률을 낼 때가 많았다.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은 18%가량이었다. 이 씨는 주가가 최근 연일 고점을 찍자 불안이 엄습했다. 과거 박스권에 묶였던 경험 때문이다. 그는 “주가 고점 수준에서 잘못 투자했다가 몇 년간 돈이 묶여 혼났다”며 “최근 펀드를 환매해 모두 머니마켓펀드



(MMF)에 넣어놨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학재(41) 씨는 지난 4월 초 해외 베트남펀드에 새로 가입한 뒤 해외펀드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미국 등 주요국 증시의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 두 달여 만에 이 펀드의 수익률이 20%를 넘어서자 김 씨는 최근 수익률이 상승장구하고 있는 다른 해외 주식형펀드에도 투자하기로 했다. 코스피가 3300선을 향해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자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뭉치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반면 미국 등 주요국 증시의 거침없는 질주에 힘입어 해외 주식형펀드에는 뭉치돈이 몰린 지 오래다. 특히 1%대 초저금리로 보수적인 은행 고객들까지 펀드 투자를 늘리는 추세다. 20일 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17일 기준)에 따르면 코스피가 우상향 국선을 그리자 국내 주식형펀드 환매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석 달 동안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빠져나간 돈은 1조3517억 원에 달했다. 코스피가 3047.50(3월 17일 종가)에서 3264.96(17일 종가)까지 오르는 동안 이탈한 돈이다. 최근 한 달 동안에도 8912억 원이 유출됐다. 반면 해외주식형펀드로는 1조8673억 원이 유입됐다. 최근 한 달 동안에도 2340억 원의 돈이 몰렸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형 펀드를 외면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본다. 첫째는 과거 낮은 펀드 수익률에 실망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이 코스피가 반등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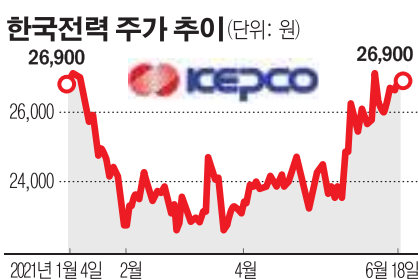
자 서둘러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는 관측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작년 3월 140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최근 3267.93까지 반등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최근 1년 평균 수익률은 57.25%에 달했다. 증시에서 직접 투자를 선호하는 ‘동학개미’가 늘었다. 개인 투자자는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53조 원어치 주식을 샀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펀드 신상품도 급감했다. 대형 운용사 관계자는 “펀드 자금 유출에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맞물리면서 신규 주식형 펀드의 출시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물 만난 고기와 같다. 올해 전체 해외 주식형펀드 수익률은 8.86%로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에 훨씬 못 미친다. 그래도 뭉치돈이 들어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지역별로 해외 펀드 수익률을 살펴보면, 글로벌 증시가 인플레이

에 따른 금리 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률 상승과 경제 회복 기대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대부분 플러스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베트남 펀드(30.42%)가 가장 높았다. 최근 베트남 증시가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강세를 달린 결과다. 양호한 방역 수준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 풍부한 유동성을 토대로 성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인도(25.97%), 러시아(20.74%) 등도 20%를 웃도는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인도 지역 역시 풍부한 증시 주변 자금이 펀드 시장으로 들어왔으며 러시아는 국제 유가의 강세로 에너지 기업의 성장세가 돋보였다는 분석이다. 올해 자금흐름 증감 상위 목록에는 △피델리티글로벌 테크놀로지증권투자자산신탁(주식-재간접형) △한국투자글로벌발전기자&배터리증권투자신탁(주식) △IBK켄소4.0레볼루션증권투자자산신탁(H)[주식]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힘 실린 전기료 인상 한전 첫 ‘연료비 연동제’ 기대

연료비 이슈 작년 3만원까지 터치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한국전력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국전력 주가는 2만 6900원에 마감했다. 이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한국전력과 정부는 7월부터 주택용 필수 사용공제 할인을 축소해 991만 가구를 대상으로 2000원의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유가 상승에 따른 3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의 추가 인상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올해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서 원유, LNG 등 연료비의 가격 변동이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3분기 전기요금 산정 기준이 되는 3~5월 두바이유 평



균가격은 배럴당 64달러로 직전 3개월보다 16%나 올라 전기료 인상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2분기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정부는 전기료 인상을 유보했다. 여의도 증권가 분위기는 장밋빛이다. 메리츠증권은 연료비 연동제가 정상 시 행된다면 분기별 한도인 3원/kWh(전년 대비 +2.6%) 정도 전기요금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별도 손익 기준 7000~8000억 원가량 영업이익이 늘어날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손익 개선 효과를 떠나 연료비 연동제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이 역사상 처음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온 2020년 12월 당시 한전의 주가는 3만 원 수준까지 상승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형 키움증권 연구원은 “작년 말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개편안에 따르면 석탄·LNG 등 연료비 상승에 따라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은 2.8원/kWh 인상돼야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물가상승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 생활 안정도 모를 위해 2분기 요금인상을 유보했다”며 “연료비 연동제가 확실히 정착되기 전까지는 실적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우람 기자 hura@

美 제조업 전망 발표…“성장주에 관심을”

주간 증시 전망

세계경제 회복 여부가 증시에 영향을 주는 한주가 될 전망이다. 2년여 만에 최고점을 찍으며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는 국제유가도 변수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가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번 주(21~25일)에는 각국의 경제 회복 여부를 짐작할 수 있는 한국의 6월 수출입현황(21일), 제록스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23일), 미국-유로존 6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 발표(23일) 등의 주요 이벤트와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증시는 3180~3300선 사이에서 제한적 등락이 예상된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지수 범위를 3180~3300으로, 한국투자증권은 3200~3300선으로 예상했다. 주목해야 할 대외 지표는 오는 23일(현지 시각) 발표되는 미국과 유로존의 6월 제조업 PMI다. 유로존 제조업 PMI는 한국 시간으로 23일 오후 5시, 미국 제조업 PMI는 23일 밤 10시 45분에 발표된다. PMI는 제조업체에서 물건구매를 담당하는 직원이 현재 혹은 향후 경기를 좋게 보는지 혹은 나쁘게 보는지의 의미를 지니는 지표로 경기를 앞서 전망할 수 있는 선행지표다. PMI가 50을 웃돌 경우 경기 확장을, 50을 밑돌 경우 경기 수축을 뜻한다. 유가도 지켜봐야 할 변수다. 지난 18일

(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보다 0.8% 오른 배럴당 71.64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우리나라가 주로 도입하는 두바이유 역시 지난 16일 배럴당 72.78달러로 2019년 4월 26일(73.45달러)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알려진 재료인 미국의 긴축 통화정책이 미칠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는 물가가 하향 조정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이 3분기 주식 시장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6월 FOMC를 통해 연준이 긴축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만 의미를 두지 말고, 그동안 두리뭉실했던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가 명확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오히려 테이퍼링 언급과 시행 시점까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확인된 만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설명했다. 문 연구원은 “하반기를 염두에 두고 현시점에서 성장주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기저효과로 낮아진 물가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 못 한 실업률, 드라이빙 시즌 동안 저축률 상승 가능성, 가상화폐 시장 규제는 성장주 선호를 높이는 투자환경으로 6월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기영 기자 pgy@



왼쪽부터 전병국 클럽원 WM 센터장, 유보영 하나은행 한남WM 센터장, 강민선 WM총괄본부장, 김창수 클럽원 한남WM 센터장, 홍용재 하나금융투자 S&T그룹장. 사진제공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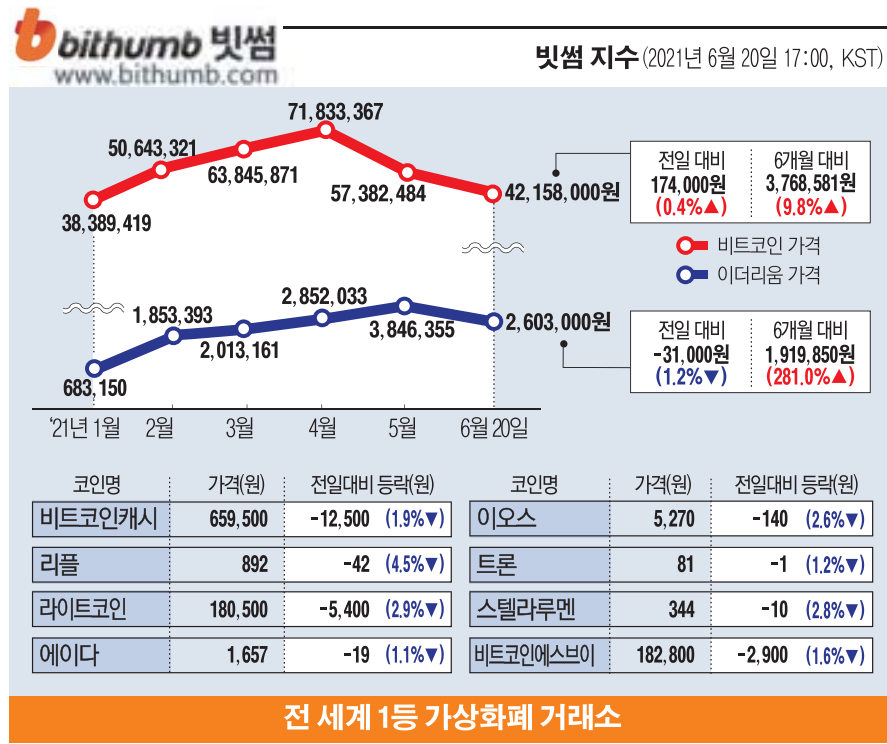
하나금융투자 ‘클럽원 한남 WM센터’ 오픈

하나금융투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신빌딩 6층에 ‘클럽원(Club1) 한남WM센터’를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Club1한남WM센터는 삼성동에 소재한 Club1WM센터에 이어 하나금융그룹이 초고액자산가를 위해 원스톱 종합자산관리(WM)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브랜드인 ‘클럽원(Club1)’의 두 번째 지점이다. 하나금융투자 한남동 지점과 하나은행 한남1동 골드클럽이 합쳐져 만들어졌다. Club1한남WM센터는 하나금융그룹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를 자산관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그룹 내 해외 24개국 214개의 점포와 상시 교류해 글로벌투자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며, Club1만의 특화된 상품을 발굴해 적기에 VVIP손님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Club1한남WM센터 PB들은 하나금융투자가 강점을 가진 리서치센터를 활용해 국내 및 해외 주식과 ETF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승계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도 선보인다. 개인 손님뿐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IPO, M&A 등의 IB 업무와 법인 자산관리도 지원한다. 김창수 Club1한남WM센터장은 “Club1한남WM센터에 오픈한 문화공간은 ‘슬로우엔컬처(Slow & Culture 뱅크)’를 지향하는 하나금융그룹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성형 기자 carlove@

카카오, 그룹단위 시총 5위 1년 반 새 460% 증가 74兆

국내 증시 시가총액 3위에 오른 카카오가 그룹 단위로도 상장사 시총 기준 국내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자회사들의 대규모 기업공개(IPO)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와 계열사(카카오게임즈·냅툰)를 합한 시가총액은 지난 18일 기준 73조93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카카오그룹은 삼성그룹(751조1009억원), SK그룹(200조9109억원), LG그룹(158조1144억원), 현대차그룹(152조2861억원)에 이어 시총 기준 5위를 차지했다. 카카오그룹은 2019년 말까지만 해도 시총 13조2388억원으로 그룹 시총 순위 13위였다. 2019년 말부터 현재까지 약 1년 반 동안 카카오그룹의 시총 증가는 약 459%, 증가액은 60조76억원에 이른다. 카카오그룹주의 성장은 IPO가 큰 몫을 차지한다. 첫 타자로 작년 9월 코스닥에 상장한 카카오게임즈(현재 시총 4조3056억원)는 당시 최대 기록인 58조원대의 증거금을 끌어모으는 돌풍을 일으켰다. 카카오뱅크가 7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으며, 카카오페이가 이달 중 유가증권시장 예비상장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GTX·정비사업 겹호재 안양 동안구 집값 ‘들썩’

GTX-C 인덕원역 사실상 확정
‘평촌더샵’ 호가 열흘 새 1.3억 ↑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 호재도
“집값 상승세 당분간 이어질 것”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일대 주택시장이 교통 호재와 정비사업 기대감에 활활 타오르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인덕원역 정차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주변 아파트값은 부르는 게 값에 정도로 치솟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C노선 민간 투자사업 평가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인덕원역과 왕십리역 추가 신설이 유력해졌다. GTX-C노선의 경우 수원·금정·정부·과천청사·양재·삼성·청량리·광운대·창동·의정부·덕정역 등 10개 역이 이미 정해졌는데,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에서 이 2개 역(인덕원·왕십리역)을 추가 역사로 제안해서다.

GTX-C노선은 덕정-수원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총 길이가 74.8km에 달한다. 사업비는 총 4조3857억 원이다.

인덕원역은 지하철 4호선밖에 없지만, 연간 이용객이 1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많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인덕원역을 신설 역으로 추진하려는 것도 그만큼 사업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GTX-C노선에 인덕원역이 추가되면 환승 없이 한번에 삼성역까지 이동할 수 있어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게다가 인덕원역에는 2025년 월판선(월곶-판교), 2026년 인동선(인덕원-동탄)이 차례로 개통한다.



GTX-C노선 인덕원역 추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안양시 동안구 일대 아파트 매매 시장은 말 그대로 ‘불장’ (불같이 뜨거운 상승장)을 보이고 있다.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내놔던 물건을 거둬들이면서 매물은 거의 씨가 마른 상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0일 현재 동안구 아파트 매물 건수는 1547건으로, GTX-C노선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된 17일(1642건)보다 5.8%(95건) 줄었다.

동안구 호계동 H공인 관계자는 “GTX-C노선에 인덕원역이 추가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많아졌지만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 중심으로 시세가 크게 뛰고 있다”고 전했다.

동안구 대장아파트인 관양동 평촌더샵 센트럴시티 전용면적 84㎡형은 이달 7일

13억6500만 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GTX-C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된 17일 이후 호가는 15억 원 수준으로 1억3500만 원가량 올랐다.

호계동 목련성경아파트 전용 122㎡형도 올해 2월 13억 원에 거래된 뒤 이달 3일에는 14억9900만 원으로 손바뀜했다. 넉 달 새 약 2억 원이 오른 셈이다.

안양시 동안구 집값은 최근 들어 GTX-C 노선 인덕원역 정차 기대감에 상승세를 타는 분위기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값은 6월 둘째 주(14일 기준) 0.99% 오르며 지난주(0.94%)보다 상승폭을 더 키웠다. 5월 셋째 주부터 이번 주까지 4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0.77%→0.86%→0.94%→0.99%)됐다.

안양시 동안구 집값 상승에는 GTX-C노선 재료 외에도 각종 개발 호재 역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GTX가 정착하게 될 인덕원역에는 현재 운행 중인 지하철 4호선을 비롯해 향후 인덕원-동탄선(인동선), 월곶-판교선(월판선)까지 더해 4개 철도 노선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감안해 안양시는 인덕원 일대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GTX-C노선 정착에 이어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인덕원은 철도와 버스·택시 간 체계적 환승이 이뤄지게 된다.

안양시에는 노후주택이 많다 보니 곳곳에서 정비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안양시에 따르면 현재 동안구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만 총 18곳이다.

관양동 E공인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는 교통 호재에, 구축 아파트는 정비사업 기대감까지 더해져 동안구 일대 집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서울 성동구 행당동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단지명	준공연도	가구수	전용면적
행당한진타운	2000년 11월	2123	
행당대림	2000년 12월	3404	59~114㎡
왕십리풍림아이원	2004년 11월	758	

※ 출처: 각 단지

행당동 리모델링 추진 ‘탄력’

행당한진·행당대림 등 조합 설립 잇따라
정비사업·교통 호재로 인근 집값 상승세

서울 성동구 행당동 일대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단지 몸값은 리모델링 기대감에다 인근 왕십리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정착역 신설 호재까지 더해져 크게 뛰고 있다.

정비업체에 따르면 행당동 행당한진아파트는 최근 리모델링 조합설립 절차에 착수했다. 행당한진 리모델링 조합설립추진위 관계자는 “이달 초 은라인 모임 개설 이후 보름 만에 전체 가구 수의 10% 규모인 200명 이상이 조합 설립에 호응했다”며 “아직 조합 설립 추진을 모르는 주민도 많은데 홍보 활동을 진행하면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당한진아파트는 총 21개 동 규모로 2000년 지어져 올해로 입주 21년차를 맞았다. 세대는 전용면적 59㎡형짜리 중소형부터 전용 114㎡형 대형 평형까지 골고루 이뤄져 있다. 용적률은 249%, 건폐율은 19%다.

지하철 5호선 행당역과 가까운 행당동 행당대림아파트와 하왕십리동 왕십리풍림아이원아파트도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 행당대림아파트는 2000년 입주한 단지로 총 3404가구 규모다. 왕십리풍림아이원은 2004년 지어진 곳으로 758가구로 구성돼 있다. 행당한진 리모델링 추진

위 관계자는 “인근 지역 개발 시점이 비슷해 거의 같은 시기에 아파트 단지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행당한진아파트와 맞닿은 금호백산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한 데 이어 시공사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지난 3월 시공사 선정 때 단독 입찰에 나선 바 있다. 금호백산아파트는 총 1707가구 규모로 2001년 지어져 올해 입주 20년차에 접어들었다.

행당동 내 주요 단지들이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나서면서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행당한진 전용 84형㎡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기 위해 부르는 가격)는 최고 14억 원이다. 같은 평형이 1월 13억63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5개월 만에 3700만 원 오른 셈이다. 행당대림 전용 84㎡형도 직전 실거래 가격보다 4000만 원 오른 13억5000만 원을 호가한다.

행당동 S공인 관계자는 “왕십리역 GTX 정착역이 확정되면서 한 정거장 떨어진 5호선 행당역 주변 단지 매수 분위도 부쩍 늘었다”며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아예 거둬들이는 집주인들도 적지 않다”이라고 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금주의 분양캘린더

6월 넷째 주 전국에서 5880가구가 공급된다. 올해 청약시장 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당첨주 인공도 가려진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총 13개 단지에서 5880가구(일반분양 224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1일에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월드메르디앙 웰라시티’가 1순위

청약에 나선다. 22일에는 경기 오산시 서동 ‘더샵 오산 엘리포레’가, 23일에는 충남 아산시 음봉면 ‘해링턴플레이스 스마트밸리’가 각각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총 9개 단지에서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22일에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역 엘크루더퍼스트’가 당첨자를 발표한다. 23일에는 경북 경산시 압량읍 ‘경산아이파크’ 당첨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25일에는 청약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당첨자

발표가 이어진다.

계약 진행 단지는 총 5곳이다.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향남역 한양수자인디에스티지’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아리스타프라임’ 등이 25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이번 주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단지는 14곳이다. 경기 안양시 호계동 ‘평촌트리지아’와 용인시 고림동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부산 북구 덕천동 ‘한화포레나 부산덕천2차’ 등이 견본주택을 연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6/21 (월)	접수	경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2순위
			김포시	통진읍	김포마송B7(국민임대) (~6/22)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월드메르디앙웰라시티 1순위(당해지역)
			화성시	봉담읍	봉담자이프라이드시티 1순위(기타지역)
			인천	서구 당하동	인천검단AA5(영구임대) (~6/23)
	발표	충북	진천군	이월면	진천이월(국민임대) (~6/24)
					진천이월(영구임대) (~6/24)
	계약	경기	화성시	비봉면	화성비봉A1(영구임대)
		대구	수성구	지산동	수성엘코하이엔드타워♣
		경기	화성시	항남읍	항남역한양수자인디에스티지 (~6/25)
6/22 (화)	접수	경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동원시티바스티♠ (~6/22)
					서면동원시티바스티♣ (~6/22)
			오산시	서동	더샵오산엘리포레 1순위(당해지역)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월드메르디앙웰라시티 1순위(기타지역)
			화성시	봉담읍	봉담자이프라이드시티 2순위
		강원	춘천시	근화동	춘천파밀리에리버파크 1순위
			평창군	진부면	평창진부웰라움더퍼스트 2순위
			전북	익산시	황등오투그란데디에디션 1순위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음성금색A2(국민임대) (~6/24)
			증평군	증평읍	증평송산A5(국민임대) (~6/23)
			청주시	용암동	청주동남A3(국민임대) (~6/24)
	발표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2신도시동탄역디에트르퍼스티지♣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역엘크루더퍼스트
		전북	익산시	창인동1가	익산역윙블레스퍼스트
	계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수성엘코하이엔드타워♣ (~6/23)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6/23 (수)	접수	경기	오른	평택시 서정동	평택고덕A54(공공분양)
			오산시	서동	더샵오산엘리포레 1순위(기타지역)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월드메르디앙웰라시티 2순위
			강원	춘천시 근화동	춘천파밀리에리버파크 2순위
		대구	북구	노원동1가	북구청역푸르지오에듀포레
	계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아리스타프라임 (~6/25)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서충주신도시월드메르디앙엔라체
		경기	오산시	서동	더샵오산엘리포레 2순위
	발표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1단지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2신도시동탄역디에트르퍼스티지♣ (~6/25)
6/24 (목)	접수	경기	오른	평택시 서정동	평택고덕A54(공공분양)
			오산시	서동	더샵오산엘리포레 1순위(기타지역)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월드메르디앙웰라시티 2순위
			강원	춘천시 근화동	춘천파밀리에리버파크 2순위
		대구	북구	노원동1가	북구청역푸르지오에듀포레
	계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아리스타프라임 (~6/25)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서충주신도시월드메르디앙엔라체
		경기	오산시	서동	더샵오산엘리포레 2순위
	발표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1단지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2신도시동탄역디에트르퍼스티지♣ (~6/25)
6/25 (금)	접수	경기	오른	평택시 서정동	평택고덕A54(공공분양)
			오산시	서동	더샵오산엘리포레 1순위(기타지역)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월드메르디앙웰라시티 2순위
			강원	춘천시 근화동	춘천파밀리에리버파크 2순위
		대구	북구	노원동1가	북구청역푸르지오에듀포레
	계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아리스타프라임 (~6/25)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서충주신도시월드메르디앙엔라체
		경기	오산시	서동	더샵오산엘리포레 2순위
	발표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1단지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2신도시동탄역디에트르퍼스티지♣ (~6/25)
6/26 (토)	접수	경기	오른	평택시 서정동	평택고덕A54(공공분양)
			오산시	서동	더샵오산엘리포레 1순위(기타지역)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월드메르디앙웰라시티 2순위
			강원	춘천시 근화동	춘천파밀리에리버파크 2순위
		대구	북구	노원동1가	북구청역푸르지오에듀포레
	계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아리스타프라임 (~6/25)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서충주신도시월드메르디앙엔라체
		경기	오산시	서동	더샵오산엘리포레 2순위
	발표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1단지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2신도시동탄역디에트르퍼스티지♣ (~6/25)
6/27 (일)	접수	경기	오른	평택시 서정동	평택고덕A54(공공분양)
			오산시	서동	더샵오산엘리포레 1순위(기타지역)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월드메르디앙웰라시티 2순위
			강원	춘천시 근화동	춘천파밀리에리버파크 2순위
		대구	북구	노원동1가	북구청역푸르지오에듀포레
	계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아리스타프라임 (~6/25)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서충주신도시월드메르디앙엔라체
		경기	오산시	서동	더샵오산엘리포레 2순위
	발표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1단지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2신도시동탄역디에트르퍼스티지♣ (~6/25)
6/28 (월)	접수	경기	오른	평택시 서정동	평택고덕A54(공공분양)
			오산시	서동	더샵오산엘리포레 1순위(기타지역)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월드메르디앙웰라시티 2순위
			강원	춘천시 근화동	춘천파밀리에리버파크 2순위
		대구	북구	노원동1가	북구청역푸르지오에듀포레
	계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아리스타프라임 (~6/25)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서충주신도시월드메르디앙엔라체
		경기	오산시	서동	더샵오산엘리포레 2순위
	발표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1단지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2신도시동탄역디에트르퍼스티지♣ (~6/25)
6/29 (화)	접수	경기	오른	평택시 서정동	평택고덕A54(공공분양)
			오산시	서동	더샵오산엘리포레 1순위(기타지역)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월드메르디앙웰라시티 2순위
			강원	춘천시 근화동	춘천파밀리에리버파크 2순위
		대구	북구	노원동1가	북구청역푸르지오에듀포레
	계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아리스타프라임 (~6/25)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서충주신도시월드메르디앙엔라체
		경기	오산시	서동	더샵오산엘리포레 2순위
	발표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1단지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2신도시동탄역디에트르퍼스티지♣ (~6/25)
6/30 (수)	접수	경기	오른	평택시 서정동	평택고덕A54(공공분양)
			오산시	서동	더샵오산엘리포레 1순위(기타지역)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월드메르디앙웰라시티 2순위
			강원	춘천시 근화동	춘천파밀리에리버파크 2순위
		대구	북구	노원동1가	북구청역푸르지오에듀포레
	계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아리스타프라임 (~6/25)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서충주신도시월드메르디앙엔라체
		경기	오산시	서동	더샵오산엘리포레 2순위
	발표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1단지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2신도시동탄역디에트르퍼스티지♣ (~6/25)
7/1 (목)	접수	경기	오른	평택시 서정동	평택고덕A54(공공분양)
			오산시	서동	더샵오산엘리포레 1순위(기타지역)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월드메르디앙웰라시티 2순위
			강원	춘천시 근화동	춘천파밀리에리버파크 2순위
		대구	북구	노원동1가	북구청역푸르지오에듀포레
	계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아리스타프라임 (~6/25)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서충주신도시월드메르디앙엔라체
		경기	오산시	서동	더샵오산엘리포레 2순위
	발표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1단지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2신도시동탄역디에트르퍼스티지♣ (~6/25)
7/2 (금)	접수	경기	오른	평택시 서정동	평택고덕A54(공공분양)
			오산시	서동	더샵오산엘리포레 1순위(기타지역)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월드메르디앙웰라시티 2순위
			강원	춘천시 근화동	춘천파밀리에리버파크 2순위
		대구	북구	노원동1가	북구청역푸르지오에듀포레
	계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아리스타프라임 (~6/25)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서충주신도시월드메르디앙엔라체
		경기	오산시	서동	더샵오산엘리포레 2순위
	발표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1단지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2신도시동탄역디에트르퍼스티지♣ (~6/25)

직제개편안 절충에 檢 중간간부 인사 속도

박범계·김오수 휴일 오후 회동
중간간부 인사 후보군 등 협의
직제개편 29일 국무회의 상정
중간간부 인사도 이달 마무리

논란이 일었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법무부가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20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서울 고검 15층에서 직제 개편안과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두 사람은 다가올 중간간부 인사의 전반적인 방향과 주요 보직 후보군을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달 중으로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인사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법무부와 합의를 거쳐 22일까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 기간 대검찰청 등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일선청 형사부가 직접수사에 착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이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

시킨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김 총장도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이에 대한 일선청 검사와 대검 부장들의 우려를 전하며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 부분이 빠지면서 박 장관이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김 총장이 요구했던 부산지검 반부패 수사부 신설안도 받아들여졌다.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총장이 감당 가능하다고 해서 일찍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을 고려하면 직제개편안(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 단계인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주중 협의 등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 통과 직후 인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이 절충안을 찾았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검찰 내부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내용이 남아있다. 각 지검의 마지막 순위 형사부로부터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형사소송법, 검찰청

법 등에 검사가 6대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앞서 대검도 “국민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하며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

다”고 반대한 바 있다.

대검은 의견수렴에 나설 전망이지만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박 장관은 “의견조회 기간이 남아 있지만 내용이나 바뀔 여지는 거의 없다”며 “일선 검찰과 대검, 검찰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밝혔다. 정수천 기자 int1000@



“편히 쉬시길”

20일 경기도 하남시 마루공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경기 광주소방서 119구조대 김동식 구조대장 빈소에서 동료 소방관들이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 “상습절도죄도 가중처벌 판단에 포함”

“단순 절도 처벌에 그치는 법리 불균형 해소해야”

절도죄 가중처벌을 위해 단순 절도는 물론 ‘상습절도죄’ 전력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지하철 2호선 안에

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7월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6년 11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9년 6월 ‘절도죄’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2019년 8월 형기를 마쳤으나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에서는 ‘상습절도죄’ 전력이 있는 A 씨를 특가법상 절도로 처벌해야 하는지

가 쟁점이 됐다. 특가법은 ‘절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1심은 A 씨의 전과가 특가법상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문언상 형법 332조의 상습절도죄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도죄(329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가중처벌하지 않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가법의 목적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에는 절도의 습벽이 인정돼 절도죄보다 가중처벌되는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습절도죄 구성요건에 절도죄를 포함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하지 않으면 단순 절도죄 전력이 세 번인 자가 절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받지만 상습절도 전력이 있는 자가 절도를 저지르면 단순 절도 처벌에 그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무허가건물 정보 땅주인에 알려야”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정보는 땅 주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토지소유자 A 씨가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에 56㎡ 면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 씨는 2020년 5월 광진구청에 자신의 땅에 지어진 목조 무허가건물 소유자의 인적 사항과 무허가건물 확인원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광진구청은 “기존 무허가건물 확인원의 제 3자 발급 시 무허가건물 거래에 악용돼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조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토지에 해당 목조 건물이 무단으로 설치돼 있어 토지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무허가건물이라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자료가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청한 정보는 건물소유자의 인적사항과 건물의 면적, 구조에 관한 정보에 불과하다”면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및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요청한 정보가 원고에게 공개될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비공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

고두현의 산책자를 위한 인문 에세이

『냉면꾼은 늘 주방 앞에 앉는다』

우리 삶에 깃든 눈물과 해학, 연민과 사랑……
시인의 ‘생각 산책’ 길에 펼쳐진 이야기 잔칫상
재미있고 진솔하고 발효된 맛이 깊다!



“아, 모든 인간의 이야기에는 눈물과 해학이 있고, 연민과 사랑이 있고, 절망과 고통이 있구나. 이야기가 재미있고 진솔하고 발효된 맛이 깊어 열심히 먹다보면 내가 그 동안 성실하고 겸손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살아야 내 삶 또한 진실한 인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문득 깨닫는다.”

— 정호승(시인)

NEW/SEOUL
HOTEL



NEW SEOUL
MORNING
PACKAGE

동원참치
VIP
PACKAGE



SWEET
SUMMER
PACKAGE

광화문의 별, **뉴서울 호텔**

실속있는 도심 속 호캉스!

“脫석탄 로드맵, 탄소발자국 지우는 힘찬 첫 걸음”

환경운동단체 ‘기후솔루션’ 박지혜 변호사

삼척 석탄발전소 건립 반대 주민 공익소송 맡으며 인연
“석탄산업은 좌초자산…계산기 두드려보면 결론 나온다”

“계획이 분명치 않으면 첫걸음도 떼기 어렵다.”

환경운동단체 기후솔루션 박지혜(사진) 변호사는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하루빨리’ 탈석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동참을 촉구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석탄 발전에 투자하실 건가요?” 최근 기후환경 단체들이 모여 여의도 증권가에 편지를 보냈다. 석탄 산업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산운용사들이 회사채를 사지 않겠다고 하자 발행 주관사인 증권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인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 ‘삼척 블루파워’의 현주소와도 같다. 삼척블루파워는 총 4조9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중 1조 원가량을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지만, 이 중 8000억 원 규모의 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기후·환경 운동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계는 업체와 계약을 맺은 회사채를 발행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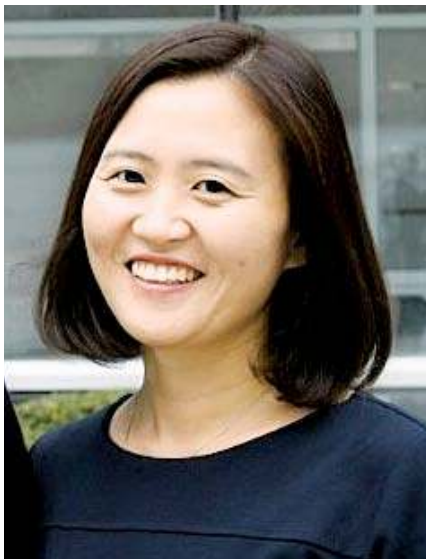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박지혜 변호사는 ‘탈석탄 전략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고 말한다. 그는 2018년 1월, 삼척 석탄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공익소송을 함께한 계기로 시민사회 탈석탄캠페인 ‘석탄을넘어서’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서울 여의도 증권가를 찾아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NH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회사는 불과 넉달 전 지주사인 농협금융지주와 함께 ‘탈석탄 금융’ 선언하면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대출과 채권 투자 중단을 약속했지만 역행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 역시 금융투자업계의 고민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에 석탄 산업이 빠지면서 기존 비즈니스 관계를 청산한다는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이해한다. 그래도 그는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명쾌한 결론이 나온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석탄 산업’은 자산운용사조차 거부하는



‘좌초자산’이라는 시한폭탄과도 같다는 지적이다. 환경 문제가 아니라 한 기업의 생존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시장 투심도 싸늘하다. 지난 17일 공모채 발행을 위해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삼척블루파워는 단 한 곳의 수요도 확보하지 못했다. 석탄발전소에 대한 시장 수요가 미진할 것을 우려해 가산 금리를 민평 대비 100bp나 높여 제시했지만 투자자를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박 변호사는 “계약”은 무조건 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당사자 간 처한 상황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국내 증권가 분위기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앞으로는 지키겠다’는 선언만 보이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선 계약 관행보다는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움직임이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박 변호사는 시장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탈석탄을 선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비즈니스가 ‘어떤’ 리스크에 노출됐고 ‘어떻게’ 바꾸겠다고 알리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한다. 그는 “구체적인 약속을 꾸준히 공개하고 이행해야 탈석탄 선언도 구호에 그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힘썼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탈석탄 로드맵도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 차원의 탈석탄 로드맵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민간 시장에서의 움직임 역시 느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정책 불확실성을 줄여야 시장 차원에서의 노력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정부의 탈석탄 로드맵’이 시급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처럼 몇 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어떻게 중단하고, 어떤 제도로 보완해나갈 것” 등 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지금 만드는 중이라고 하지만 너무 느리다. 정부 차원의 탈석탄 계획이 빨리 나와야 민간 시장도 지금보다 훨씬 자신감 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헤림 기자 wiseforest@

환경부 친환경전환정책 총괄국장에 장기복 정책관…민간전문가 첫 임용

친환경전환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에 녹색경제 정책 및 환경시장 연구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처음 임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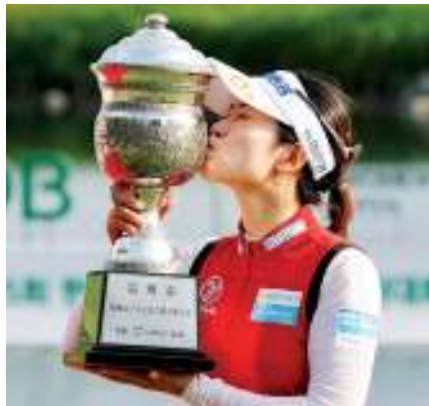


환경부와 인사혁신처는 국장급 경력개발형 직위 공모에 지원한 장기복(56·사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에 임용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구현과 환경산업의 육성 및 기술을 개발하고, 녹색제품 구매 촉진 및 친환경소비 확산 정책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헤드헌팅)으로 발굴된 장 정책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서류전형과 면접, 국장급 역량평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임용됐다.

26여년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근무한 장 정책관은 환경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탄소중립, 환경산업의 육성 및 통합환경관리 제도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다. 특히 환경기술 산업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고, 환경산업 육성의 문제점과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파악하고 있어 녹색전환정책관의 직위에 적합한 인재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대세’ 박민지, 메이저대회도 접수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대세’ 박민지(23)가 여자 골프 최고 권위의 내셔널 타이틀인 한국여자오픈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박민지는 20일 충북 음성군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DB그룹 제35회 한국여자오픈(총상금 12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3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로 우승했다. 박현경(21)을 2타 차로 따돌린 박민지는 이번 시즌 들어 9개 대회에서 무려 5승을 수확하는 초강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쉐트리온 퀸즈 마스터스에 이어 2주 연속 우승컵을 들어올려 통산 우승 횟수를 9회로 늘린 박민지는 처음으로 메이저대회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다. 사진제공 한국여자오픈조직위

바리톤 김기훈, BBC 카디프 콩쿠르 아리아 부문 우승

바리톤 성악가 김기훈이 ‘BBC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 2021’ 아리아 부문에서 우승했다고 BBC방송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대회로, 세계 3대 바리톤으로 불리는 브린 터펠과 드미트리 흐보로스토프스키도 이 대회 출신이다. 김기훈은 수상 후 인터뷰에서 “내 남은 커리어 기간 확실하게 기억될 여정이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잭슨 대회 예술감독은 “전례 없는 상황에서 16명 경쟁자 모두 헌신적으로 집중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벅찼다”고 총평했다. 이어 김 씨에 대해 “대회 역사상 가장 놀라운 작품 중 하나였다”며 “그의 커리어에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인이 이 대회에서 수상한 것은 1999년 바리톤 노대산, 2015년 베이스 박



바리톤 김기훈이 19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린 ‘BBC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 2021’에서 아리아 부문 우승을 차지해 트로피를 들고 있다.

사진제공 아트앤아티스트

종민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아리아 부문만 놓고 보면 김 씨가 처음이다. 앞서 수상자들은 가곡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퍼스트 도그’ 챔프와 이별한 바이든 “마음 무겁다”

13년간 동반…3살 메이저만 남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퍼스트 도그’ 챔프가 세상을 떠났다.

19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부부는 성명을 내고 “우리의 사랑하는 독일 셰퍼드 챔프가 평화롭게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며 “소식을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3년간 그는 우리의 소중한 동반자였고 우리 가족 모두의 사랑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부부는 “챔프는 하루를 마치고 장작불 앞에서 몸을 웅크리거나, 우리와 함께 회의에 참석하는 것, 백악관 정원에서 햇볕을 쬐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며 “어린 시절엔 델라웨어 집 뒷마당에서 손자들과 뛰어다니는 것을 매우 행복해했다”고



질 바이든 미국 영부인이 1월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 입성한 ‘퍼스트 도그’ 챔프를 맞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회상했다.

챔프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당선된 2008년 12월 바이든 가문에 합류했다. 지난 몇 달간 고령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에는 이제 2018년 11월 입양한 3살짜리 강아지 메이저만 남게 됐다. 고대영 기자 kodae0@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승진 △청년정책조정실장 남형기 ◇과장급 채용 △홍보기획행정관 김동원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고위공무원단 국외훈련 정장길

◆환경부 ◇국장급 임용 △감사관 정광명 ◇국장급 전보 △기후변화정책관 이병화 ◇과장급 전보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전환정책과장 조현수 △기후변화정책관실 신기후체제대응팀장 민중기 △물통합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강성구 △ 수질관리과장 박병인 △자연보전국 자연공원과장 배연진 △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장 김지영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전략과장 김경환 △물환경정책관실 생활하수과장 한준옥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장 홍경진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장 최선두 △ 화학제품관리과장 신건일 ◇과장급 승진 △대구지방환경청 기획평가과장 박주영 △자연보전국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김지수

◆조달청 ◇과장급 전보 △청정실 비서

관 이경원 △국방물자혁신과장(공모직위) 유재석 △강원지방조달청장 최명근

◆한국부동산원 ◇부원장 임명 △부원장 겸 기획경영본부장 양기돈 ◇상임이사 선임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 이석균

◆삼일회계법인 ◇신임 파트너 △강대호 △권석준 △김경환 △김동환 △김강협 △김용현 △김지산 △김현백 △나현수 △박건영 △박동욱 △박호준 △심현석 △오지환 △유홍서 △윤덕은 △이민지 △이윤석 △이정규 △이창훈 △임영빈 △장운원 △전형진 △진현태 △채호기 △허재진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 승진 △구국회 △안지수

◆경향신문 △논설주간 이종근 △논설실장 김민아 △신문국장 김광호 △미디어전략실장 김장근 △문화사업국장 김희연 △편집국 뉴스콘텐츠부문장 김준기 △ 콘텐츠랩부문장 겸 행정디렉터 박재현 △ 스포츠경향편집국장 염민웅 △ 기획디렉터 겸 스포트라이트부장 서의동 △ 산업부장 홍진수 △ 사회부장 정재혁 △ 정책사회부장 이주영 △ 전국사회부

장 한대광 △ 문화부장 손제민 △ 디지털뉴스편집팀장 김창호 △ 데이터저널리즘팀장 황형상 △ 라이프팅장 장희정 △ 소통·젠더데스크 장은교 △ 전국사회부 선임기자 이명희 △ 스포츠부 선임기자 김경호 △신문국 정치에디터 안홍욱 △

혜영 △ 경제에디터 김준 오관철 △ 사회에디터 이상호 정유진 이범준 △ 교열부장 김선경 △ 교열부 선임기자 김숙자

◆CBS ◇본사 △상무대우(콘텐츠경영 부문 총괄 상무) 오준석 △기획조정실장 이종성 △경영본부장 강진오 △선교TV본부장 최문희 △마케팅사업본부장 이완복 △감사법무실장 이상준 △디지털콘텐츠국장 박유진 △TV제작국장 오현숙 △공연기획센터장 심영보 △경인방송본부장 구용회 ◇지역방송본부 △부산방송본부장 박창호 △광주방송본부장 정용선 △전북방송본부장 김선경 △청주방송본부장 박상용 △강원방송본부장 정예현 △강원영동방송본부장 이경범 △전남방송본부장 권신오

◆미디어SR △편집국 산업부장(부국장) 채명석

부음

경제학계 원로 박광순 전남대 명예교수

원로 경제학자이자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인 박광순 전남대 명예교수가 19일 오전 9시 30분 별세했다. 향년 86세.



고인은 전남대 상대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남대 교수로 활동하면서 학생처장·교무처장·대학원장을 지냈고, 고려대 교환교수와 목포대 학장, 한국경제사학회 회장으로 역임했다. 일본사가(佐賀)대와 도호쿠가쿠인(東北学院)대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쳤다.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금호학술상·다산경제학상·용봉학술상을 받았다. 저서 ‘한국어업경제사 연구’, ‘비교경제체제론’, ‘경제사’, ‘문화의 경제학’, ‘왕인 박사 연구’ 등을 남겼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영숙 씨와 아들 박주형·주일·주호 씨, 딸 박윤아 씨, 사위 전봉희 씨가 있다. 빈소는 광주 금호장례식장

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2일 오전 7시 30분. 062-227-4000

▲천금동 씨 별세, 오순화·유진·미희·은화·빈씨 모친상, 서성익·전근식(한일시멘트㈜ 대표이사)·박승순 씨 장모상 = 20일, 대전 을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2일 오전 7시30분, 042-259-1081

▲최강준 씨 별세, 최명재(전 KT 상무)·동재(전 전북도청 사무관)·숙재·형재(전 더불어민주당 전주를 지역위원장)·옥재·영재 씨 부친상 = 20일,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2층 특1호실, 발인 22일 오전 8시, 063-250-2441

▲최분남 씨 별세, 전태민·민규·미아 씨 모친상, 김장하(YTN 국장) 씨 장모상 = 20일, 일산 동국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2일, 031-961-9400

▲최순자씨 별세, 이명화·명옥·명희·왕식, 김명숙 씨 모친상, 박기원(전 프로배구 대한항공 점보스 감독)·김근·김승배 씨 장모상 = 18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1일 오전 8시20분, 02-2258-5969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일본 아오야마학원대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

과거 박사과정 때 한 친구와 ‘직장내 훈련(on-the-job training)’과 관련된 논문을 함께 준비하면서, 미국의 스타벅스가 자사 매장 직원들 중에서 선발하여 대학 4년의 등록금을 지원해 주던 제도에 대하여 논의한 적이 있다. 대졸자가 되면 스타벅스 매장 일을 관둘 것인데, 도대체 왜 스타벅스는 우수 직원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줄까?

배달음식 플랫폼과 라이더의 아름다운 동행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사이의 단견 배달 경쟁이 뜨겁다. 후발주자인 쿠팡이츠가 단견배달을 앞세워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자, 배달의 민족도 동일한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에 맞서 쿠팡이츠는 배달수수료 무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러한 플랫폼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은 식당 주인들과 소비자들을 미소짓게 만든다. 이와 더불어 배달을 담당하는 ‘라이더’들의 주머니도 두둑하게 해 준다. 그러나, 전업 라이더들의 경우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배달음식 플랫폼의 속성상 배달비 절감 이외에 마땅한 경쟁 수단이 없기에, 배달비 인상 경쟁은 라이더 확보를 위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음식 배달과 같이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업무를 그때그때 대중으로부터 조달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대중으로부터 조달은 필요한 순간에 잠깐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부업 노동력에 의존한다. 그러나 오토바이 등을 타고 음식을 배달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인지, 실제 배

달 업무는 다수의 부업 라이더가 아닌 소수의 전업 라이더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일괄적으로 건강 거리별 배달비를 지급하는 현재의 보수 체계는, 부업자들의 참여는 충분히 독려하지 못한 채 ‘중국집 철가방’이라 불리던 배달 노동력만 외주화했다는 비판을 부른다.

이런 경우 경제학은 각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부업자와 전업자를 위한 계약을 구분할 것을 권고한다. 우선, 배달 가능 건수의 기준을 정해서 모든 참여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기준 건수 이하를 선택한 참여자들에게는 그들이 선호하는 단거리·단시간 배달 건에 대한 우선 선택권을 주고, 지급과 같이 건강 배달비를 지급하자. 단거리 일감에 대한 우선권은, 돈보다는 편안한 일에 대한 선호가 더 강한 부업 참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배달비 인상 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기준 건수 이상을 선택한 참여자들에게는 앞선 참여자들이 덜 선호하는 일감을 배정하되 기준 건수까지는 고정급여를, 초과분에 대해서는 구간별 성과급을 지급하자.

기준 건수 이상을 선택하는 참여자는 전업 참여자일 것이고, 편안한 일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을 선호할 것이다.

또한 전업 라이더들 중에는, 일시적으로 음식 배달일을 전업하면서 다른 직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들의 경력에서 현재의 직업은 막다른 골목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기준 건수 이상을 선택한 참여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공인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 혹은 입사 시험 등의 다음 직업 준비 과정을 보조해 주자. 고정급여와 약간의 성과급, 그리고 각종 시험 준비 보조금이라는 보상패키지는 전업 라이더들에게만 작동하는, 그렇지만 상당히 효과적인 보상이 될 것이다.

과거 박사과정 때 한 친구와 ‘직장내 훈련(on-the-job training)’과 관련된 논문을 함께 준비하면서, 미국의 스타벅스가 자사 매장 직원들 중에서 선발하여 대학 4년의 등록금을 지원해 주던 제도에 대하여 논의한 적이 있다. 대졸자가 되면 스타벅스 매장 일을 관둘 것인데, 도대체 왜 스타벅스는 우수 직원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

해 줄까? 그들의 속내는 알 길이 없지만 당시 우리는, 상향표준화된 맛과 향 그리고 분위기를 지향하는 스타벅스 입장에서 자사 기준에 맞는 대졸자를 낮은 임금에 장기간 고용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고졸자 중에서 대학에 진학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인재를 선발하여 (대학 졸업 시까지) 장기 고용하려는 전략일 것이라 결론지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으로 직행하고, 대학에서도 스펙 쌓기에 열중해야 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과거 스타벅스의 전략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은 성실한 사람들과 최대한 오래 함께하면서도 금전적 비용은 최소화해야 하는 플랫폼 업체들의 당면과제는 비슷하다. 부업자/전업자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다른 직업을 준비 중인 전업 라이더들의 미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이 나서서 부업/전업 라이더의 노동 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플랫폼 업체와 라이더들의 일시적이지만 아름다운 동행을 유도할 수는 없을까.

대방로



이근 행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고 대국민 보고를 하였다. 주권을 잃고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와 한반도 분단을 결정한 포츠담회의가 마음 속에 맴돌았다고 소회를 밝히며, “이제 우리는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다른 나라와 지지와 협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당당한 선진국으로 대접받고 국제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분명 자랑스런 일이다.

1997년 겨울, 정부는 나라 금고에 달러 화폐가 바닥나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달러 빚을 얻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구제 금융을 융통하기 위해 우리는 굴욕적이라고까지 표현한 구조조정을 당했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 스스로 결정한 운명이 아니었다.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내수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수출주도형 성장전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

략에 매진해 왔다. 외환위기 당시 무역의존도(수출·수입액/국내총생산)는 50% 수준이었고 성장할수록 무역과 달러 의존도는 높아졌다. 2008년 90%를 넘어 정점을 찍고 2019년은 64% 수준이다. 문제는 무얼 팔아 달러를 벌고 그 달러로 무얼 사와야 우리가 먹고살 수 있는가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30.4% 수준, 에너지자급률은 2.4% 수준이었다. 나라살림 형편이 달러 빚을 내서 그걸로 해외에서 먹거리와 에너지를 사오지 않으면 추운 겨울을 버텨낼 수 없었다. 당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IMF의 구조조정을 받으며 달러 빚을 얻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구제금융을 거부했다. 우리보다 무역의존도가 높았지만 사회 유지의 근본인 먹거리와 에너지를 어느 정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었기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으로 버텨내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개인도 스스로 먹고살 수 있어야 부모나 외부에 의존하거나 간섭받지 않고 자기의

삶을 결정할 수 있듯이, 한 사회도 스스로 자립·자존할 수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라도 갖추어야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공동체의 허약한 의존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경고였으나 우리는 체질 개선보다는 일단 쥐어짜서 빚을 갚고 보자는 길을 택했고 사회공동체의 결정권을 강화하는 길보다는 각자도생의 경쟁적인 물질 성장에 몰두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 파병 논란이 있었을 때 미국의 에너지 패권에 맞서자는 민주, 평화 촛불이 있었지만 이미 포섭되어 있는 우리의 삶은 민주정부라 하여도 파병 요청을 거부하는 결정은 할 수 없었다. 당시 상황을 보고 고 권정생 선생이 쓴 글의 제목은 ‘승용차를 버려야 파병도 안 할 수 있다’였다. 석유와 달러에 의존해 물질을 누리지만 스스로 삶을 결정할 역량과 의지는 없는 우리의 모습을 통찰하고 있다.

먹거리 자급력의 요소로는 농사를 짓는 사람 수, 연령대, 농사지을 수 있는 토지 면적, 농지의 지력, 농업용수, 종자 등을 짚는데 우리 사회는 현재 합계출산율만큼

이나 어느 하나 긍정적인 요소가 없다. 2019년 곡물자급률은 21.0%까지 낮아지고, 에너지자급률은 근래 재생에너지가 조금 늘었지만 6.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 국민 1인당 식품 수입량은 734kg으로 20년 새 두 배가 늘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수출이 늘고 달러를 벌여와 먹거리와 에너지를 양껏 수입해 풍요를 누리고 있으나 유한한 지구에서 지금의 풍요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 게다가 기후위기 시대에?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사회의 여건을 성찰하고 사회의 건강한 지속성,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기로에 서 있다. 성장의 위기, 기후위기 상황은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고, 먹거리의 생산과 자급을 제고, 수급과 소비방식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바깥 나라 정상들이 대접해 준다고 우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에너지와 식량주권을 확충하려는 실천 없이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 시드니 스미스 명언
“자신의 본성이 어떤 것이든 그에 충실하라. 자신이 가진 재능의 끈을 놓아버리지 마라. 본성이 이끄는 대로 따르면 성공할 것이다.”

전쟁에 평생을 바친 영국 해군 장교. 미국과 프랑스 혁명 전쟁에 참전한 그는 제독의 반열에 올랐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그의 말년을 회상하면서 “그 남자는 나에게 내 운명을 그리워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764~1840.

☆ 고사성어 / 불천노(不遷怒)
‘내면의 분노를 외부의 대상에 옮기지 않는다’는 말. 원전은 논어(論語)雍야(雍也)편. 노(魯)나라 애공(哀公)이 제자 증누가 배우기를 좋아하는지 묻자 공자(孔子)가 한 대답. “안화라는 자가 배우기를 좋아해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허물을 두 번 범하지 않았습니다[有顔回者好學不遷怒不貳過].”

☆ 시사상식 / 병목 인플레이션(bottle-neck inflation)
생산속도가 수요의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여 병목현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물가가 오르면 정부는 긴축 정책을 쓰고 시장이 불황에 빠져 투자가 부진해지고 다시 생산 증가속도가 느려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 우리말 유래 / 바람맞다
육신이 마비되며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중풍(中風)에 걸린다는 말에서 왔다. 남에게 속거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했을 때의 손해나 허탈감을 빗댔다.

☆ 유머 / 계의 속성
정치인 셋이 해변을 걷다 계를 잡고 있는 어부를 만났다. 3선 국회의원이 바구니 안을 들여다 보며 “바구니 뚜껑을 닫는 게 좋겠소. 계들이 기어나와 도망 못 가게”라고 하자 어부는 필요 없다고 통명스레 대답했다. 어부가 덧붙인 말. “계는 정치하는 놈들과 같아서 한 놈이 기어오르려고 하면 다른 놈들이 그놈을 끌어내리니까요!”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김 중 응 사회경제부/deep@

인권불화(不和)적 공수처

재이첩한 뒤 최근 재재이첩을 요청했다. 수원지검이 거절했지만, 공수처가 이들을 입건하면서 중복수사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규원 검사는 윤종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연달아 받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사실상

하나의 사건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혐의를 나눠 수사하고 있다”며 “이것이 새로운 인권수사의 기법인가”라고 비난했다. 중복수사는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공수처가 최근 제정한 ‘변호인의 접견·교통 및 참여에 관한 지침’도 인권과 거리

가 멀다. 해당 지침은 신문이나 조사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 1인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인원수 제한은 검찰 지침에도 없는 내용이다.

이 지침에는 ‘과도한 장시간의 접견’으로 인해 신문·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공수처 검사가 접견·교통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과도한 장시간’이 도대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주관적인 기준이다.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하는 공수처가 오히려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기준을 제시한 사실이 놀랍다.

국민들은 공수처에 ‘다른 것’을 기대했다. 과거 수사기관의 폐단을 답습한다면 공수처는 ‘옥상옥’에 불과하다.

전면등교 앞두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9월이면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간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연가와 ‘풍당풍당’ 등 교를 거둬한 지 3학기 만이다.

코로나19는 국내 교육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생동감 넘치던 학교는 사라졌고, 적막감이 흘렀다. 교육 당국은 원격 수업이라는 공여지책을 밀어붙였다. 아이들은 태블릿PC 등을 통해 화상으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났다.(이마저도 근래의 일이다. 인프라와 경험이 부족했던 초기엔 ‘동영상 시청’이 맞는 표현이겠다) 원격 수업의 한계는 분명했으나 코로나19의 위세에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아이들의 학교 수양은 멈췄고, 사회성 발달도 늦춰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들의 등교일수는 92.3일로 예년의 48.6%에 불과했다. 중학생들은 이보다 낮은 88.1일(46.3%), 대학수능능력시험을 준비해야 할 고등학생은 약간 많은 104.1일(54.8%)을 기록했다.

아이들로부터 많은 것을 앗아간 코로나19는 최근 교육부 차원의 공식 통계(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로 실질적인 학력 저하가 확인되면서 심각성이 더 커졌다. 그동안 시도교육청이 개별 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를 추정할 적은 있으나 교육 당국의 전국적인 조사에서 아이들의 학습 결손이 수치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표집 조사 대상인 중3의 국어·영어, 고2의 국어에서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이 갑

데스크칼럼

장 효 진

사회경제부장



소했다. 특히 중학교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수준이 상승했다. 중3, 고2의 영어 과목의 경우 2019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교육부는 학습 결손으로 인한 학력 격차를 감시하기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 시스템을 표집이 아닌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학습 결손은 아이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OECD는 학습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개인의 생애소득 3%가 하락한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부의 2학기 전면 등교 결정은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끝까지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다. 코로나19는 아직 진행형이다. 그만큼 전면 등교는 위험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교육 당국은 철저한 방역 준비를 통해 전면 등교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한다. 우선 8월까지 유치원, 초·중·고 교직원과 고3, 수험생 등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1617억 원을 투입해 급식·보건교사 등 최대 6만 명의 방역 인력을 각급 학교에 지원한다.

학교 방역의 최대 취약점으로 꼽히는

급식은 급식실 지정좌석제, 교실 배식 전환·병행, 대체식·간편식 제공 등을 실시한다. 무증상 감염자 선제 발견을 위한 학교 이동형 전자증폭(PCR)검사확대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8월까지 방학 대비 학원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추진한다.

그러나 새로운 게 없는 교육부의 방역 대책은 아쉽다. 무엇보다 백신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성인 인구의 81.0%가 1차, 59.0%가 2차 접종을 완료한 백신 모범국 영국은 1000명대 후반까지 내려갔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1만 명대로 급증했다. 인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 탓인데, 백신 접종 이후 느슨해진 방역 경각심이 주된 원인이다.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급식 방역 대책은 부족하다. 손 소독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에게 맡기고 급식처럼 감염 위험이 높은 쪽에 인력과 자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 방역이랍시고 질 떨어지는 간편식·대체식을 아이들에게 주는 어리석은 짓도 하지 말아야 한다.

전면 등교는 학원 정상화를 의미한다. 방학 대비 선제 검사와 같은 일회성 대책은 무의미하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아직 일일 확진자가 400~600명씩 나오고 있다. 교직원과 학생들의 확진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4차 유행의 도화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더욱 촘촘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 js62@

사설

국가경쟁력 잡아먹는 정부·노동시장 후진성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작년과 같은 23위에 자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64개국을 대상으로 한 평가순위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5위), 홍콩(7위), 대만(8위), 중국(16위)이 우리보다 앞섰다.

IMD는 매년 각 나라의 경제성과와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의 20개 부문에 대한 통계자료와 기업인 설문조사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평가한다. 국가경쟁력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대표적 지표다.

이번 평가에서 주목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제가 혼란에 빠진 와중에 우리 경제성과와 기업효율성이 크게 개선된 반면, 정부효율성과 인프라 분야가 뒷걸음질치면서 경쟁력을 잡아먹었다는 점이다. 경제성과가 27위에서 18위로 올랐다. 작년 성장률이 -0.9%로 뒷걸음질했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경제 추락을 선방한 덕분이다. 수출이 견조하게 버텨 주었고,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데 힘입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20년 33위에서 2021년 7위로 높아지면서 국내경제 평가가 11위에서 5위로 뛰었고, 국제무역이 41위에서 33위로, 고용이 12위에서 5위로 개선됐다.

반면 정부효율성이 28위에서 34위로 크게 하락했다. 조세정책과 제도·기업·사회여건 모두 경쟁력이 떨어졌다. 조세정책은 19위에서 25위로, 제

도여건은 29위에서 30위로 내려앉았고, 기업여건은 46위에서 49위로 하락,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업활동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가 민간의 성장력을 쇠퇴시키면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현실의 반영이다. 기업효율성의 최대 걸림돌로 노동시장이 꼽힌 것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생산성과 경영활동, 금융시장 효율은 높아졌는데 노동시장 경쟁력이 28위에서 37위로 바닥 수준으로 추락했다.

정부는 우리의 양호한 경제성과가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은 성공적 K방역과,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충격 최소화 및 한국판 뉴딜 등 정책 대응의 결과”라고 자찬(自讚)한다. 어이가 없다. 오히려 기업 등 민간 부문의 생존을 위한 노력이 국가경쟁력을 지탱하는 동안 정부의 비효율이 계속 발목을 잡아 온 현실만 거듭 확인됐다. 해마다 지적된 문제다.

그럼에도 기업규제와 노동시장 후진성의 고질병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돌파구도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규제의 혁파에서 찾아야 한다. 정부는 다시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일겠다고 틀에 박힌 목소리다. 오히려 그동안 기업의 숨통을 죄는 과도한 규제만 쏟아내고, 친(親)노동 일변도로 경제활력만 죽여 왔다. 이 정부의 지난 4년여 동안 그런 정책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기고

조 용 순

한세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급하다

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 기준을 위반하기가 쉽지 않다.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지식재산권범죄 중 ‘영업비밀침해행위’ 양형기준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 있다. 이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국외’ 유출에 있어 처벌수준은 ‘기본’의 경우 1년에서 3년 6개월의 징역, ‘감경’의 경우 징역 10개월에서 1년 6월까지이며, ‘가중’ 처벌의 최대치는 징역 2년에서 6년까지이다.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초범이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있는 경우이며, 가중처벌은 피해 규모가 크고, 전과자인 경우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은 대부분 화이트칼라 범죄로 대부분 전·현직 직원으로 초범이 많고, 피해액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분 집행유예나 경미한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1심 재판의 경우 실형은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13건, 벌금 4건 등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계 등은 ‘숨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현재 양형 규정으로는 산업기술 등의 유출사건에서 범죄 역지 효과가 전혀 없다. 범죄의 예방 또는 역지는 법정형의 강화가 아니라 실제 형사처벌의 강화에서 비롯된다. 참고로 미국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경제스파이법’이 있는데, 2011년 캘리포니아 법원은 보잉사의 우주왕복선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던 당시 74세의 중국계 미국인에게 이 법을 적용해 15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다른 경제스파이와 국민에게 경각심을 준 바 있다.

지금의 기술유출과 관련된 양형기준은 2017년에 시행된 것으로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강화된 법정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형위원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디지털성범죄, 교통사고범죄 등의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따라서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기술유출범죄의 경우에도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과의 괴리를 좁힐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반드시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많은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초범이나 이익 실현이 없음 등의 사유로 대부분 ‘감경’에 들어가는 사례가 많으므로 기술유출의 경우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정비돼야 할 것이다.



미리 보는 한 주

소비·기업심리 개선 흐름 이어질까

이번 주는 한국은행이 바쁜 한 주가 되겠다. 월말에 나오는 소비자 심리·기업 체감경기 지표를 공개하고, 최근 생산자물가 통계지와 민간 부문의 부채 현황을 알 수 있는 금융안정 보고서를 내놓는다.

한은은 22일(화) 5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앞서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3월(107.04)보다 0.6% 높은 107.68(2015년 수준 100)로,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5월 소비자물가가 2.6% 오르며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5월 생산자물가지수도 원자재 가격 강세 지속으로 7개월째 상승했을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날 한은이 내놓는 금융안정 보고서(6월 기준)에는 가계·기업 등의 신용(빚) 현황과 특징 등이 담긴다. 작년 말 공개된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민간 부문의 신용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11.2%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4일(목)과 25일(금)에는 각각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와 6월 기업경기실사

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가 공개된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12월 91.2로 바닥을 기록한 이후 1월 95.4, 2월 97.4, 3월 100.5, 4월 102.2, 5월 105.2로 다섯 달째 개선됐다. 전산업업황 실적 BSI는 지난해 10월~올해 2월 74~78로 정체 국면을 보이다 3월 83, 4·5월 연속 88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백신 접종자 증가 등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달도 소비·기업심리의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통계청은 23일(수) ‘4월 인구동향’을 내놓는다.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출생아수 감소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삼성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제재 내용을 발표한다. 지난 3일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줘 부당지원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삼성그룹이 2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을 포함한 자진시정방안을 제출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정리=홍석동 여론독자부장 hong@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우리 지구

내 아이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 지구라 생각하면

1분 1초가 아까우니까

우리금융그룹은

석탄 산업에는 지원을 줄여가고

신재생에너지 지원은 늘려갑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를 바라며.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자산운용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신용정보 우리편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